

‘통합 정치 탈춤’ 이제 끝내자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로 본 인사청문회



이재호
본회 신문편집위원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25일 철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했지만 쏟아져 나온 각종 비리와 의혹 앞에서 결국 두 손을 든 셈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의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의 설명 중 “이 후보자가 보수진영에서 세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한 대목이 유독 눈길을 끈다. 그는 왜 이 대목을 굳이 언급했을까. 검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보수진영에서 세 차례나 의원을 지내 웬만큼 검증이 된 줄 알았다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가 워낙 많고 그 내용도 아주 악성이어서 모든 게 거기에 묻혀버렸지만 대통령실은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인사’라는 사안 자체가 워낙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 식 정치인 빼가기가 그 대안은 아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도적으로 ‘국민추천제’를 실시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필자는 이혜훈 후보자를 청문회 때 일각에서 비아냥거리듯 ‘꽃놀이패’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는데 놀랐다. 민주당으로서는 이혜훈 후보자 같은 인물을 검증대에 올림으로써 국민통합의 의지를 한껏 과시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낙마시키면 된다는 얘기였는데,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냉소적이 되었나 싶다.

낙마과정에서 누구도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적어도 실무자 차원에서라도 준엄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 유권자들은 이른바 ‘검증의 정치’

상대진영 인물 스카우트 하듯 전격 영입 ‘꽃놀이패’ 탈피하고 국민 추천제 바람직

내밀한 것이어서 사전에 알기 어렵고, 따라서 검증도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럴수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부터 그런 검증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검증의 실패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권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이런 식의 ‘검증정치’에 대

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상대 진영의 인물, 한 두 사람을 스카우트 하듯 데려와 쓰다가 이내 버리는 정치는 전형적인 기만의 정치, 구태 정치다. 그런 식으로 정치인 한 둘 빼간다고 해서 통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단절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할 다른 방법이

의 허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정치권과 권력 주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든 경제를 위해서든,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진심으로 협조를 구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필자는 기존 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첫발을 내디뎠으면 한다. ㉠

대한언론 특별기획 <기사 11면>

박정희 경제 기적 재조명



지난 1월2일 대한언론인회 고문과 이사진이 제24대 집행부의 시무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해로 거듭나자”

제24대 첫 시무식

이종세 회장 취임식 겸해

대한언론인회는 1월2일 오전 11시 회우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겸한 '제24대 이종세 회장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이종세 회장은 전임회장을 역임한 조창화 이병대 박기병 회우에게 고문 위촉장을 수여하고 장석영 전임회장에게는 명예회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장석영 명예회장에게는 “재임3년 동안 본회 회장으로 본 회발전엔 기여한 공로에 감사한다”며 감사패를 함께 수여했다.

박종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종세 회장은 “병오년 새해는 다변화되는 국제정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하면서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문광고 수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해가 될것으로 예



이종세(왼쪽) 대한언론인회 제24대 회장이 장석영 제23대 회장으로부터 대한언론인회기를 건네받고 있다.

상한다”며 재정기반의 안정을 올해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세 회장은 새 집행부 임명식에서 감사에 이종남 마권수, 부회장에 유한준 정재필 서옥식 김두호 이항숙,

상임이사 사무총장에 박종서, 주필 이도선, 신문편집위원장에 이재호, 유튜브방송위원장에 최명우, 인터넷신문제작위원장에 김사모 회우 등 14개 위원장을 선임,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사정리 박종서(본회 사무총장)

에 의거, 조창화 이병대 박기병회우를 고문으로, 장석영회우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위의 임면에 대한 사항과 부회장 업무분담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에 앞서 박종서 사무총장은 2025년 12월29일 제23대 장석영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 업무를 접수했다.

이사회엔 이종세회장, 박종서 정재필 한양인 서옥식 이항숙 유한준 김동철 신대남 전의식 조희곤 김화 이재권 송종문 민경완 이재호 이사등 16명이 참석했다.

부회장 5명에 업무 분담

1월 5일 첫 이사회 개최

대한언론인회 이종세 회장은 1월5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2026년 첫 이사회(제17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첫번째 안건인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임면에 대하여 정관 제16조1항 제42조2항에 의거, 박종서회우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제2안건은 정관 제18조2항에 의거,

부회장들에게 업무를 분담토록 했다. 유한준부회장은 사무처 업무담당, 정재필부회장은 사진 및 행사진행 담당, 서옥식부회장은 대한언론 신문제작 지원, 이항숙부회장은 문화탐방 신청 기획, 본회관련 행사에 관한 대한언론 기사작성, 김두호부회장은 유튜브방송, 인터넷신문담당 등 업무를 분담토록 했다.

제3안건으로 정관 제44조, 제43조



〈이종세 회장 취임 축하 화분 보내주신분들〉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 ◇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
- ◇광동제약(주)경영총괄 대표이사 박상영
- ◇동아일보 동지회 회원일동
- ◇한국방송신문협회 회장 이보길

마무리시 권명섭



대한언론인회 기금 11억 1,400만원 인수

신구 집행부 업무 인수인계

이종세 본회 제24대 회장 취임에 따라 신 구 집행부는 2025년 12월 29일 대한언론인회 운영 전반에 걸쳐 인수인계를 완료했다.

예적금통장(2025년 12월 19일 기준)정기예금1) 1,014,000,000원, 정기예금2)11,069,320원, 인건예상 ;100,000,000원, 보통예금통장1)농협056-01-xxxxxx 잔고 42,863,020원, 보통예금통장 2)농협 301-0289-xxxx-xx 잔고 4,978,054원(12월19일 이후 12월29일까지의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은 보통예금통장에 기재되기 전의 금액임).

이밖에 방송장비 촬영카메라 1대, 트라이포트 1대, 무선마이크 1대, 조명장치 1대, 사무용 컴퓨터 비품 집기 도서 신문보관철 등을 인수했다.

한국외교 패러다임 바뀌어야 한다

요동치는 국제정세...새로운 외교전략 필수



이규진
본회 논설위원

“까불면 죽는다”(Fuck Around and Find Out),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 이 두 마디는 2026년 새해 벽두 한국 외교에 던져진 거대한 담론이다. 잊거나 외면하고 싶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엄연한 현실 압박이다. 현재 진행형인 국제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주는 압축 프레임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21세기 G2 초강대국 사이에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까불면 죽는다”(FAFO)는 1월 3일 한밤 중에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감쪽같이 뉴욕으로 압송한 직후 백악관에서 나온 경고 메시지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그냥 두진 않을 것이라고 예견되긴 했지만 이토록 전격적으로 완벽하게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리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일어났고 그 파장은 전 세계로 번져 나갔다.

다음 차례는 쿠바, 이란, 북한의 순이라는 생뚱맞은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향한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내 유럽과 갈등을 빚었다. 미국의 전통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의 공동 반발에 트럼프식 ‘닥치고 공격’은 일단 멈칫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쉽게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신먼로주의’ 행태를 눈앞에 생생하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 ‘경찰국가’의 위치에서 세계 질서의 균형자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외교정책 근간을 무너뜨리고 트럼프는 전혀 다른 외교 스타일을 펼치고 있다. 미국 국가이익을 위해서는(MAGA) 국제법이고 동맹이고 모두 내동댕이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민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연합뉴스제공)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 안 통해

들에 안보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관세 폭주로 미국에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를 강제하는가 하면, 그린란드 땅을 탐내면서 전통적인 나토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제국주의가 부활한 착각이 들 정도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시진핑 입에서 나온 말이다.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무서운 경고다. 한 마디로 ‘알아서 기라’는 말이다.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 줄 설 것이냐 택일하라는 이야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고 애써 태연하게 슬쩍 넘어 갔지만 머리 속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이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후 이례적으로 공동성명도 없었고 공동 언론발표문도 없었다. 한·중 간에 풀어야 할 현안이 북한 비핵화 문제, 무역 문제, 서해 상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철거 문제, 사드 제재 해제 문제, 남북한 문제, 서해 경계설정 문제 등등 굵직한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합의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가?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유의미한 합의내용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 북한 등 이해 당사국의 눈치를 보아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할 목적에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다만 중국측 발표 내용에 과거에는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서 의례적으로라도 언급되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쏙 빠진게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훈계 (혹은 경고)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절망적이다. 이제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란 느낌마저 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 후 일주일도 안돼 일본을 방문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다져 놓았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계속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가 들어선지 갓 2개월 밖에 넘지않은터라 일본의 외교 정책을 탐색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리틀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아 ‘일본의 정상국가’ 복귀 (일본의 군사강국과 외교에서의 군사력 사용 지지)를 외치는 강경 보수주의자다. 총리가 되자마자 “대만에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위기로 간주

하겠다”고 대만 문제 개입을 천명해 시진핑의 코털을 제대로 건드렸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그 후 미국에 찰싹붙어 트럼프의 중국 견제 최전방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이 점차 노골화되고 중·일 갈등이 폭발하기 일촉즉발 직전인가 하면 트럼프의 힘에 의한 권력정치가 전 세계의 기존 질서를 총체적으로 흔들며 놓는 작금의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외교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숙청’(purge)과 ‘종교탄압’이라는 내정 간섭 단어가 튀어 나온 것은 트럼프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어

떠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다음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애매 모호성이다. ‘실용외교’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알맹이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인지 고립을 자초할 ‘등거리 외교’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외교인지 명확하질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쪽에도 ‘세세’ 저쪽에도 ‘세세’하면 된다”는 인식이 부메랑이 되어 외교 참사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중국의 ‘강요’ 사이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출범 2년차를 맞아 국가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확고한 국정 철학을 내세워 거기에 맞는 글로벌 외교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안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밖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이해를 얻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한 패러다임으로는 안된다.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심도있는 ‘글로벌 외교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된다. ☐

이재명 정부 군사전략 뒷걸음 ‘위기’

세계는 드론혁명...우리는 드론작전사 폐지 권고



김성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2026년 새해 들어 세계 군사전략가들은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다. 드론이 지금까지 보여준 빠른 속도의 전장 장악력은 놀랍다. 드론은 전쟁 수행의 보조 수단에서 주요수단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강한 러시아 전력에 맞서야 하는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민간 동호회에서 운용하던 드론도 징발해 다량을 전선으로 보냈다. 드론의 조종수는 원래 정규군이 아니었지만, 이 역시 민간에서 대거 모집됐다. 평시에 게임에 빠진 젊은이들이 예리한 눈과 민첩한 엄지손가락으로 수백명을 사살하는 드론 저격수로 변신했다. 우크라이나는 여성들도 드론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력 부족을 타개하고자 아예 여성으로 구성된 드론 부대를 창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드론)와 병력(조종수)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버티고 있다.

양국의 드론은 보병 병력과 전차를 발견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지상전의 왕자라는 전차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곤란을 겪었다. 양국의 전차 수천대가 파괴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값싼 드론 공격으로 멈춘 전차도 수 백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드론은 전차의 장갑이 상대적으로 얇은 상부, 후방을 공격할 수 있으며, 야포 미사일보다 명중률이 높고, 값싼 가격으로 대량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전차는 평원을 질주하는 기동 대신에 드론의 감시를 피해 은신해야만 하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 빠졌다. 전력으로 별다른 이목을 끌지 않았던 드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세계 최강으로 지칭되는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에이브럼스 전차 역시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군은 이에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한 한국 무인기.(연합뉴스 제공)

따라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개량형 전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의 전쟁에서 드론은 수량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황을 흔들고 있다. 드론은 끊임없이 영역을 확대해 왔고, 많은 영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 세계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자

위지자 소형 1인칭 시점 드론(FPV)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드론인 PPDS가 야간에 비행장을 급습해 전투기와 방공시스템을 부수기도 했다. 또 드론의 약점인 항속거리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제트 추진 드론인 팔라니차를 개발해

뒤쳐져야 하는 숙명을 안아야만 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드론이 오늘날의 보병처럼 상대방의 항복을 확실히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혁명 주장은 선부르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우세한 공중 전력에 의한 제공권 장

우크라 드론 공습에 러시아 방공망 초토화

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이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은 드론을 정찰과 지휘통신, 타격에 연동시켜 적극 활용했다. 반면 아르메니아도 드론을 도입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산악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해 참호 전투에 매달렸다. 참호에 몸을 숨긴 아르메니아군은 공중으로부터 드론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2차원 대 3차원의 대결은 아제르바이잔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드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적절한 성능을 갖춘 드론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TB2 바이라타르 드론은 고착된 전선에서 방공망의 발달로 활동이 어려

러시아의 내륙 깊숙한 곳을 공격했다.

앞으로도 드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과 결합되면 하늘을 뒤덮는 숫자가 한꺼번에 비행하는 군집 드론이 일상화될 것이다. 바다에서는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이 대형 함선을 찾아 나설 것이다. 값싼 가격의 육상 전투 로봇도 머지않은 이야기이다.

군사전략가들은 드론의 발전이 군사혁명 수준인 드론혁명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다. 군사혁명 시기에는 전쟁 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전력이 급상승했다. 역사적인 예로 화약혁명, 산업혁명 등 군사혁명이 나타나는 시기에 화약과 철도, 전신, 철갑선을 갖추지 못하면 그대로

악을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방공망과 개인 대공 무기로 막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드론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의 드론들은 서울의 권력 핵심부와 중요 군사시설을 휘젓고 다녔다. 여기에 대비한다며 드론작전사가 창설됐지만, 이번에 민간인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낸 드론 비행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으며, 수개월 동안 감감한 채 지냈다. 북한이 이를 공개하고 나서야 난리법석이다. 급기야 국방부장관 직속 민관군 특별자문위가 1월 20일 드론 작전사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하기가 드론혁명을 걱정해야 할 책임자들이 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았으니 더 이상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대통령도 사형집행 가능한가요?

특검팀 ‘윤석열 사형 구형’으로 본 과거와 미래



최명우

본회 유튜브 방송 위원장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누가 윤석열을 죽이려는가. 윤석열에의 사형집행이 가능할까.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철회했는데 이에 대해 조은석 특검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잡아들여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06일 만에 벌어진 초유의 충격적 사건이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린 내란 우두머리’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정적 물증들에 계엄 선포 21일 전 작성된 ‘비상계엄 작전 명령서’, 국회 본관 3개 지점 점거 작전지도, 야당 의원 37명 체포명단과 구치소 배정표 등이 있다고 했다. 또 국방부 내부망에는 군 1만여명, 경찰 3만여명 동원 명령서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문서들은 즉흥적 결정이 아닌 장기간 치밀한 사전 준비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어찌됐건 윤석열 사형구형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30년 전 12·12 사태 당시 전두환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과 일치한다. 당시 전두환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윤석열 사형구형에 대한 1심 선고는 2026년 2월 10일로 확정됐다. 문제는 여기서 ‘사형’이 선고되느냐 하는 것이다. 1심 사형선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는 기간은 약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란 단정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사형이 확정될 경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윤석열 재판은 앞으로 더 복잡해질



30년전 전두환 사형선고 받고 무기징역 감형

것 같다. ‘내란우두머리 등’ 및 ‘체포 방해 등’ 외에도 평양 무인기 침투, 채상병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 명태군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다룬 각각의 재판들에서 구형과 선고가 나오고, 각각의 사건들이 2심과 3심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사형 구형’과 그 이후다. 지난 1월 16일에는 ‘체포 방해 등’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줄 줄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형량들을 다 합쳐도 종신징역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때가 문제지만 사면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사형인 것이다. 느닷없이 형이 집행되면 만사휴의, 그것으로 끝이다.

안그래도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뜨고 크게 관심을 끄는 질문이 “윤석열 사형선고 실제 집행 가능성 있나요?” 하는 것이다.

만약 사형이 확정, 선고 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미미하다. 지난 기록들로 추정해보면 3% 미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전무하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동시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9년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법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덟차례 발의되고 폐기된 것이다. 정치는 그간의 여러 기회를 흘려보내며 사형제도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교정시설에서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흉악범죄 사형수를 한 곳으로 이감하는 등 아리송한 모습을 보여 수감자들을 불안케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지난 1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자정을 넘겼

고 윤 전 대통령은 14일 0시11분부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결국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실소(失笑)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된 원고를 1시간30분 동안 읽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이 마땅하다는데 어쩔 것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구형되는 날이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내란 우두머리죄는 계획성, 조직성, 사회적 피해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검은 ①3주간 사전 준비, ②군경 4만명 동원, ③국가기관 무력화 시도, ④재판 불출석 및 반성 부재 등을 최상위 양형사유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윤석열에게 몰아붙여 사

형구형의 정당성을 포장했다.

‘윤석열 사형’의 정치적 파장은 정치 경제는 물론 지선·대선 국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야 불구하고 분당, 보수 재편, 헌법개정 논의가 가속화할 것이다. 멀리 보면 대통령 비상권한 제한 등 민주주의 안전장치 강화를 내세울 수도 있다.

그나 저나 신경 써야 할 것은 민심이다. 야측에선 ‘지금 윤석열 감옥 보내고 사형 때린다고 좋아 죽는 사람들’이라며 여측을 조롱하는가 하면 여측에선 ‘내란 우두머리가 끝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을 되풀이 한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윤석열이 제거되면 국힘은 그때부터 윤과 손절하고 “우린 새 당이다” 하면서 중도층 흡수에 힘을 쓸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죽이기로 먹고 살았는데 그 ‘빌런’이 사라지면 또 무슨 이슈를 이끌어내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다.

“나는 절대로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 없다. 미래는 너무도 빨리 닥쳐오기 때문에…”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반공개 得보다 失 많다”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왜곡 날조로 民心 교란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왕조 우상화와 대남공산화전략전술에 따른 대한민국 적화멸망을 선동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일반 공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적 시각에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그런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함으로써 노동신문 일반 공개 금지 해제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국가보안법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였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분류, 12월 30일자로 열람 가능한 공공기관을 기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비롯해 181개로 늘리고 국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신분확인이나 신청절차 없이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자유와 진실을 전파하는 대북방송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노동신문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클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노동신문이 언론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과 함께 대남적화(공산화)전략전술의 총사령탑인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기관지이기 때문이다. 현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은 북한이 주체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당 총서기인 김정은도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2023년 12월30일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보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령역(영역)에 편입하겠다(2024년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다(2024년 2월9일 북한군 창군 76돌 연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다. 노동신문은 1948년 9월

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이자 김일성 공산정권 수립일인 9월 9일만이 조선반도 유일의 정통성을 뿌리내린 날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신문은 6·25전쟁(1950)에 대해서는 전쟁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한과 미국에 돌리는 등 북침설을 고수하면서 전쟁의 성격을 ‘조국해방전쟁’이라

러났는데도 자신들과 무관한 자작극, 조작·날조극, 모략극 등으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보도를 일삼아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신문은 중국 무역상 등을 통해 2~3주 분량이 한꺼번에 국내로 들어오고, 구독 비용은 1년에 약 191만 원이다. 국내 신문 연간 구독료 24만원(월 2만×12=24만원)의 약 8배에 달한다. 이런 신문을 국민 혈세로 보게 된다.

이 대통령처럼 남북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언론교류와 공개를 통하지 않고 북한 신문만을, 그것도 당의 통제를 받는 기관지를 일방적으로 자유롭게 열람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하다. 벌써부터 북한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동신문 공개열람 정책에 따라 6면으로 발행하는 신문의 2면 정도를 남한관련 소식으로 편집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렇



대북방송 금지하면서 일방적 열람 허용 큰 패착

9일 북한 정권 수립, 그리고 같은해 10월 10일의 노동당 창당 이래 “서구의 다당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주 내용으로 한다는 자유민주주의는 실제로는 근로 대중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위선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며, “수령의 영도 아래 일심단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해왔다. 예컨대 2024년 8월 19일자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인민의 의사가 반영된 체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분식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으로, 자본의 착취와 침탈행위를 변호하고 사회주의를 비방하는 사상적 도구”라고 맹비난함으로써 그들의 인민민주주의를 옹호했다.

노동신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북한 공산정권 수립 이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을 정도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함으로써 집단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부패시키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황금만능주의의 부패한 경제이며 공산주의 체제전복 시도라고 보도해 왔다.

노동신문은 대한민국 건국일이자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미제의 사족(唆囑)아래 세워진 괴뢰정부 조작일, 민족 분열의 날’로 폄하하

고 규정하고 결과는 북한의 승리라고 선전한다. 신문은 1950년 6월 26일자에서 “이승만 괴뢰 군대가 38선 전 전선에서 불법 침공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후 지금까지 전쟁의 책임을 한·미 양국에 전가해 왔다. 노동신문은 남로당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 반대를 위해 일으킨 공산폭동인 제주4·3사건(1948)을 ‘5·10단독선거 저지를 통해 통일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정의로운 남조선 인민들의 구국항쟁’, 역시 군부내 남로당 장병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반란인 여순사건(1948)을 ‘애국 군인들과 인민들의 공동투쟁’으로 보도해 왔다. 광주 5·18(1980)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의 ‘반미·반파쇼 인민항쟁’으로 규정하고 ‘주체(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의 기치(旗幟) 따라 발발한 인민봉기’라고 보도함으로써 주체사상과 연관짓기도 한다.

이밖에도 노동신문은 ▲미얀마 아웅산묘소 참배시 한국 외교사절 17명을 사망케한 테러폭파(1983), ▲승객 등 탑승자 115명 전원을 몰살케한 KAL 858기 공중폭파(1987), ▲천안함 폭침(2010)에 대해 북한이 주도한 명백한 테러나 도발이라는 증거가 드

경우 북한은 남한 언론매체들이 정치, 경제적 압력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도를 기피·축소하는 부정적인 뉴스(예컨대 이재명 정부의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 등)들을 발굴, 보도함으로써 반정부 시위 등 남한 주민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을 외치는 불만세력이나 주사파 등 종북좌파세력들은 이런 노동신문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체제의 부정적인 면을 연일 대서특필함으로써 통일협상에 장애가 된 적이 있다.

더구나 북한같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매체는 거짓과 함께 왜곡·조작·날조의 명수들이다. 오죽했으면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을 혁명으로 성취시킨 레닌이 그의 ‘제국주의론’에서 “공산주의자는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거짓말도 충분히 자주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을까.

만약 북한이 남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사건들을 왜곡·조작함으로써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불안과 민심교란을 야기할 경우 이재명 정부는 감당할 수 있을까? ☞

‘공천장사’ 민주당 부패비리 늪 빠졌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 보좌관 갑질 도덕성 상실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지금까지 한국정치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인식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보수진영 국민의힘은 내분(분열)으로, 진보진영 민주당은 부패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의 힘은 한동훈 전 당 대표 가족의 댓글과동이 빛은 윤리위의 한동훈 제명결의 후유증 내분으로 비틀거리고 있고,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회의 중 코인투자, 보좌관 차명의 주식거래에 이어 공천현금과 보좌관에 대한 갑질, 대형 부패비리 사고가 터져 도덕윤리 상실의 막장에 빠져들었다.

보수는 전통·자유·생산을, 진보는 혁신·평등·분배를 이념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보수는 옛 것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이미지와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집권 경력 때문에 기득권 세력으로 암묵적으로 치부해 와서 실수만 안 하면 현상유지는 해왔다. 그리고 천막 당사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세 번이나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등 부활에 성공했다. 그러나 진보진영 정당은 다르다. 혁신이 빠진 진보정당은 진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 진보주의는 사회모순을 변혁하려는 전진적인 사상경향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진보는 사회 모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혁신없는 진보는 존재감이 없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도덕적 우위가 진보의 존재 자체다. 윤리와 도덕성을 상실한 진보는 지금 가치와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진보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은 지금 보수를 능가하는 부패비리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지금 민주당은 부패비리에 대한 자각이 없어 보인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공천현금 부패비리가 터졌을 때 정청래 당 대표는 “시스템 에러가 아

니라 휴먼 에러”라고 말했다. 고질적인 병폐인데도 당 차원의 대책보다 개인 일탈로 가볍게 넘겨버렸다. 공천현금이란 말도 부당하다. 현금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쓰인 돈에만 해당된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돈 주고 시의원, 구의원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은 민의(民議)가 아니라 전의(錢議)다. 현금이 아니라 공천돈거래요, 공천장사다.

정치는 권력의 분배요, 정치인은 윤리에서부터 출발한다. 강선우의원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과 공천돈거래 의혹 보

장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갑질은 절정을 이룬다. 인턴 보좌관에게 언론대응이 부신했다고 “야! 널 죽이고 싶다”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질타한 이 후보자의 갑질은 아랫사람에 대한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에 가깝다. 이 후보자는 이뿐만 아니라 결혼한 아들을 위장이혼까지 시켜 점수를 채운 로또아파트 당첨의혹, 영종도 땅 투기, 세 아들 증여세 납부, 아들 장학금 수령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에 싸여 있다. 인품이나 재산증식에서 공직을 맡기에는 국민감정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720

현금은 화룡점점이다. 김 의원 부인은 구의원에게 “5백만원은 구정선물로 많고 정치현금으로 적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다. 김 의원 부인과 차남은 집 근처 닭발집에서 구 의원이 선 결제한 업무추진비 450만원으로 22회에 걸쳐 식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대한항공 숙박권, 강원도 호텔 숙박권, 쿠팡식사, 노량진 수산시장 횡집 식사 등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수사로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만 국정을 논할 국회의원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자질구레한 처신이다.

김남국 전 의원의 국회회기 중 코인거래, 이준근 전 법사위원장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보좌관 차명 주식거래, 양문석 의원의 새마을금고 대출, 최민희 의원의 국회회기 중 국회에서의 딸 결혼식 등으로 선출된 권력의 부패비리가 국민의 지탄으로 경종을 울렸는데도 그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진보정치인들이 혁신을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실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찰수사의 늑장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여당 국회의원들의 수사는 전혀 속도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혐의만 가지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집에서 수갑 채



김병기 의원



강성우 의원

진보정치인들 혁신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화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 후유증 내분 몸살

도를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이나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강선우 의원은 보좌관에게 집안 화장실 수리와 쓰레기 처리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전 보좌관들은 폭로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보좌관에게 국정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를 돕게 하고 차남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며느리와 손자의 공방의전까지 챙기게 했다. 보좌관을 집사처럼 부려먹었다.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 3선하고 2번 낙선하면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열렬지지자였다가 진보진영에 백기 투항한 이해훈 기획예산처

조원의 국가예산을 담당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탕평책도, 실용도 아닌 민주당 정권이 부패비리에 익숙한 도덕불감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단수공천을 한 과정에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내용도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김 간사는 공천불가 의사를 비쳤는데 어떻게 공천됐는지에 대해 뒷선개입을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 구의원 공천

위 연행했던 그 결기는 지금 경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김경 시의원을 출국금지도 안해 해외에 나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게 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지금 한국의 진보세력은 진보 고유의 가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평등과 분배, 참여와 공감이라는 시대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숫자의 힘에 의존한 권력행사에 개인적인 탐욕을 즐기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의 자만으로 극단적인 기득권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혁신이 없으면 앞날은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입이 가볍다”

國益과 직결되는 지도자 언행은 신중해야



이도선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입이 가볍다’란 표현은 말을 함부로 옮기거나 언행이 즉흥적이고 경망스러운 사람을 가리킬 때에 쓴다. 이런 부류는 속 터놓고 사귀기 힘들고 일을 그르치기 일쑤이니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입이 가벼워 구설에 자주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 없이 가벼운 입’은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 전천후다. 연말에는 부처·공공기관 업무 보고에서 잇단 돌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더니 신년 벽두에 방문한 중국에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헷갈리는 모호한 화법으로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통령의 입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란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의 가벼운 입은 역사가 꽤 길다. 대통령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말로 많은 사람을 우롱했다. 유세 도중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중도와 우파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부랴부랴 내놓은 변명이지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애들 말장난하듯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은 몹시 불쌍사나웠다. “국민 집단 지성 수준 무시” 운운하며 자신의 말실수를 얼버무린 것도 꼴불견이다. 2022년 7월에는 “고학력·고소득층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 의힘 지지자가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민 갈라치기’라는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맞은 총선 국면에서도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2024년 3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떠나 새 지역구로 삼은 인천 계양을에서 식당 손님에게 “설마 ‘2찍’은 아니겠지?”라며 상대 정당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은어를 썼을 때에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 연루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건의 책갈피 외화 밀반출 수법이 만천하에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탈모는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 “북쪽이 남쪽의 북침 우려” 등 최고 국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도둑놈 심보”, “말이 길다” 등의 거칠고 천박한 어투로 기관장과 실무자를 공개리에 면박한 것도 남사스럽다.

지난달 4~7일의 방중 기간에도 그의 가벼운 입은 쉬지 않았다.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힌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발언이다. 미국과 떨어져 자기편에 줄 서라는 무례하고 오만한 압박을 애써 희화화하며 국가적 자존심을 스스로

총선대선 후보 시절 ‘2찍’ 등 말실수 눈총 부처 업무보고때도 국정·정책기조는 뒷전

도 “국민을 비하하고 분열시키는 망언”이란 힐난이 쏟아졌다. 충남 당진 유세에서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라며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그냥 세세(謝謝, ‘고맙다’의 중국말) 하면 되지”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대만해협이 우리나라 해상 물류의 주요 길목일뿐더러 대만이 침공당하면 주한 미군이 투입될 수도 있는 등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남의 일인 양 얘기하는 턱없는 무지도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는 보기 역겨웠다. 지난해 조기 대선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들 속을 뒤집어놓았다.

이 대통령의 가벼운 입은 집권 이후 증상이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2025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 다음은 직접 선출 권력, 그리고 간접 선출 권력”이라

고 강조했다. 말만 국민을 앞세웠지 실은 국회 다수당을 장악한 대통령이 사법부도 마음대로 휘둘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북한식 1당 독재를 노리는 속셈이 은연중 드러난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헌법 어디에도 없는 이 대통령의 독단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면으로 거슬러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궤변이다. 법조계와 야당 등에서 “삼권 분립 원칙 훼손”이란 질타가 빗발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11~23일 사이에 실시된 228개 부처·공공기관 업무 보고는 가벼운 입의 대향연이었다. 사상 첫 TV 생중계라며 요란 떨었으나 정작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국정 현황과 정책 기조는 뒷전이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지엽적 문제들을 들춰내 대통령의 알팍한 지식을 과시하는 열치기 쇼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본인

내팽개친 가벼운 처신이다. 국가의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 시절,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의 훈계성 일장 연설을 다소곳이 들었던 전력과 겹치며 ‘대중(對中) 굴종’ 논란이 재연된 이유다. 중국이 ‘제2의 남중국해’로 만들려는 저의가 역력한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우리 쪽으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마치 중국 대통령처럼 해명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가벼운 입은 위에 열거한 사례들 말고도 부지기수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지만 우리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입만 열면 사고를 치니 큰일이다. 그런데도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더라”는 개팔들 얘기를 일반 시민의 반응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한 마디 한 마디 신중하게 발언하며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대통령은 언제쯤이나 볼 수 있으려나. ☞

K-방산 ‘육·해·공’ 수출 지구촌 휩쓸다

경제 포커스

K자주포·잠수함·KF-21등 각국 러브콜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K-방산(방위산업)이 새해 들어서도 육·해·공에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국정 과제로 내건 정부가 적극 나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글로벌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요가 급증한 글로벌 방산시장을 집중 공략,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와 기업 간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늘의 제왕으로 등극한 KF-21 전투기...세계 언론 찬사 잇따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가격이 공식 발표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최신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에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 언론들은 “한국 전투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가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본형인 KF-21 블록1의 단가는 약 8300만 달러(1200억 원)로 F-35 가격(1억80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구입을 검토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도 KF-21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천궁-Ⅱ’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한국 방산과의 협력 경험이 있는 국가다.

한국산 전투기는 해외 언론에서도 찬사를 받고 있다. 항공 전문지 에이비이션 위크는 얼마 전 “한국산 전투기 KF-21이 기술력과 가격을 무기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와 조정 과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사업이 궤도를 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이 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힘찬 위용.

발한 KT-1 ‘웅비’의 생산라인을 전부 이전 받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항공기를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조립 설비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까지 포함된 전례없는 방산 협력 안이다. 전투기는 단순히 기체

능력 때문이다. 특히 납기 능력의 경우 너무 빨리 무기를 배송하는 바람에 폴란드 현지에서는 ‘쿠팡 로켓배송’ 같다는 비유까지 나온다. 그러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반드시 넘어야 할 ‘방산 카르텔’ 장벽이 있다.

다음달 초. 상대는 잠수함 강국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이다. 이번 수주전은 기업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하다.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해야 방산 4대 강국 진입 가능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글로벌 비중 2.2%)이다. 현재까지의 잔여 계약 물량은 전차 916대, 지원화기(자주포·다연장포 등) 626대 등으로, 주로 지상 방산에 한정돼 있다. 전차와 지상화력 지원 무기는 글로벌 1위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했지만, 수주 대상이 폴란드뿐이고 고부가가치 품목(함정, 잠수함,

동남아·중동·유럽 수신포로 규모 계약 임박 방산 세계 4강 목표 정부-업체 공조 협력 중요

만 파는 게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유지보수,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조종사 훈련 등 장기적 협력관계가 만들어진다. 한편 방위청은 지난 2024년 6월 KF-21 1차 양산 20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2조3900억 원. 기체 한 대로 환산하면 약 1195억 원 수준이다. 이 물량이 끝이 아니라 초기 전력화 묶음으로 40대가 올해부터 순차 전력화되는 계획이 구체화돼 있다.

폴란드는 K-방산의 주요 고객...신속한 납기로 유럽시장 뚫어

K-방산은 육지에서도 결실을 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폴란드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3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4조5천억 원(부가가치세 23% 포함 5조6000억 원)이다. 지난 2022년 11월 1차 이행계약과, 지난해 4월 2차 이행계약 당시 규모는 각각 약 5조 원과 2조2000억 원 수준이었다. 이로써 한국은 한 국가에 단일 무기 체계만으로 13조 원의 수출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높은 기술력, 가성비, 그리고 신속한 납기

NATO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구매 강화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폴란드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무기 공동구매 예산을 책정 중이다.

역대급 60조 원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 눈독

방산 수주전은 바다에서도 불을 뿜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경쟁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다. 최대 12척을 도입할 예정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향후 30년간 유지·보수비용까지 감안하면 최대 60조 원짜리 노다지다. 한국의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잠수함은 척당 1조 원이 넘는 방산수출 효자 상품이다. 척당 100억 원 안팎인 전차보다 100배 이상 고부가 이익을 낸다. 현재 글로벌 10대 방산 강국인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품은 아직까지 육상 무기가 과반이다.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수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말 컨소시엄(‘코리아원팀’)을 구성,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다. 개별 경쟁 시 같은 나라 기업끼리 수주 단가를 낮추거나 정부 지원이 분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종 제안서 마감은

항공기) 비중도 낮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는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전에 뛰어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4년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실패한 뼈아픈 이력이 있다. 당시 10조원 규모의 사업에서 양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다 최종 입찰에서 탈락한 것이다. 집안싸움으로 인한 국력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던 배경이다. 또 폴란드 잠수함 사업(오르카 프로젝트) 역시 미흡한 현지화 전략이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공조를 통한 치밀한 방산 세일즈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지역에 특화된 첨단 방산 제품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한 각 부처와 방산업체 간의 치밀한 공조시스템도 중요하다. 지상 무기 중심의 수출 확대만으론 상위권 도약에 한계가 있다. 단일 계약 규모와 후속시장(MRO)이 더 큰 잠수함·함정 등 고부가가치 플랫폼으로 외연을 넓혀야 체급이 바뀐다. 정부가 목표하는 방산 4대 강국 진입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직시할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활동 중인 ‘방산 세일즈단’의 부단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파원 수첩 런던 ⑩**50년만에 돌아온 ‘손기정 투구’ 인연****가족과 여름휴가 중 본사에서 베를린 취재 지시****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두 발로 세계 제패하다’, 손기정특별
전 연일 대박
청동 투구, 월계관, 금메달 한자리에,
민족의 긍지 자랑

작년 용산의 중앙박물관에서는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특별전이 6개월 동안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 제목은 백범 김구 선생이 1947년, 손기정옹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과 서윤복선수의 1947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축하하여 써준 족자, 족패천하(足霸天下)의 한글 버전이다. 이번 전시는 조국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달린 손기정 선수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했던 여정을 돌아보는 자리. 민족의 긍지와 기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특별전은 마침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일 인산인해, 장사진을 쳤다.

이 전시는 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600만명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다. 작년 한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무려 605만7,483명. 이로써 용산박물관은 입장객 면에서 대영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을 제치고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돌풍은 전 세계에 퍼진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덕분이지만 이 덕에 이른바 ‘뿔즈’라고 불리는 박물관 기념품도 품절의 연속이었다. 박물관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 런이 극성을 부리고 어느 외국인 여행객의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란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이곳은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필수 코스, 핫플로 자리잡은 것이다.

전시품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사유의 방’. 고요한 분위기 속, 은은한 미소의 반가사유상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그 분의 말씀은 오늘도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연일 인파가 물리는 모습이 루브르 박물관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우승 기념으로 받은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

의 모나리자 방을 연상시킨다.

그 방 바로 이웃에서 열린 손기정 특별전에서는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우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 등 손 선수의 발자취를 인공지

능(AI)으로 재현하여 시대의 감동을 전했다. 올림픽 마지막 코스를 달리는 손 선수의 역주하는 모습을,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수만 관중의 우렁찬 환성과 함께 재현한 골인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 많은 전시품 가운데 백미는 단연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오묘한 청록 빛, 눈과 입만을 드러낸 채 머리 전체를 감싸는 ‘코린토스 양식’, 목으로 이어지는 아랫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갔다가 유연하게 빠지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

**50년 만에 돌아온 보물과는 악연
여름 휴가 망쳐, 식솔 두고 취재 떠나는 마음 편치 않다**

그러나 나는 이 보물을 볼 때마다 나의 ‘망친 여름 휴가’를 연상하며 원망에 잠긴다. 국가적으로나 우리 국민



1936년 베를린올림픽마라톤에서 1위로 골인하는 손기정.

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보람이지만 나는 이 투구와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런던 특파원 시절 나는 여름휴가를 얻어 렌터카로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을 헤매고 있었다. 식솔을 데

것.) 나는 연락상의 혼선에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것 없이 토레몰리노스에서 바로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아내에게 아이들과 함께 이틀 뒤 마드리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떠나는 아비마음은 편치 않았다.

올림픽 기록에는 일본 이름 ‘기테이손’ 그대로

그의 복권 위해 국민의 적극 참여 절실
손기정 옹이 꿈에도 그리던 청동투구의 반환 행사는 1986년 8월 17일 서베를린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리히트 호펜 스포츠연맹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에베아르트 서베를린 시장은 아마추어에겐 메달이외에 부상 수여를 금지한 IOC 규정 때문에 투구를 바로 넘겨줄 수 없었다고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 일본의 방해가 작용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보장될 없었기 때문이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리스 브라디니신문사가 올림픽 우승자에게 줄 부상으로 만들어진 이 투구는 그 동안 주인공을 찾지 못

청동 투구·월계관·금메달 한자리에 특별전

리고 아랍브라 궁전과 오페라 카르멘의 배경이었던 세비야일대를 돌아본 다음 지중해변에서 선탄을 즐기고 있는데 런던에서 연락이 왔다. 바로 베를린으로 가서 손기정 투구반환 사실을 취재하라는 지시. 집을 비우기 때문에 혹시 본사에서 텔렉스로 무슨 연락이 오면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웃집 아줌마의 전갈이었다. 당시에는 셀라폰은 물론 팩스도 없던 시절. 국제전화는 너무 비싸서 연감생심, 본사와의 연락은 꺾짝만한 크기의 텔렉스가 고작이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각설하고, 나는 휴가를 떠나기 전 본사 국제부 데스크 (당시 문명호 외신부장)에 양해를 받고 가지 않았는가? (알고 보니 문 부장은 나의 휴가 사실을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허락해 준 것이고 베를린 취재 지시는 그가 마침 비번 때 내려온

해 샤로텐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왔다. 1936년의 금메달리스트가 실로 우승 50년 만에 보물을 가슴에 안는 순간, 그는 울먹였다. “금메달을 두번 받는 기분입니다. 하나는 당시의 금메달이요, 또 한번은 오늘 이 청동 투구입니다.”

악연은 또 있다. 투구를 돌려받은 몇 달 뒤 손기정 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런던에 와 계시단다. 나는 또 가족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분의 안내자가 되었다. ‘후배가 받는 동아일보 일장기 말살의 후과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한 가지. 국제올림픽위원회 기록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이 일본식 발음 그대로 ‘기테이 손’, 국적은 ‘일본’인 채 수정되지 않고 있다. 손기정 기념관에서는 그의 이름과 국적을 되찾기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복권을 앞당길 수 있다. ☎

박정희식 차별적 인센티브 사상 살려야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⑦



좌승희 박사
아주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3. 박대통령의 새로운 경제발전 사상: 시장은 새로운 창발의 길이며, 평등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러한 복잡계적 시장관은 다소 난해해 보이겠지만 우리의 경제생활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만 돈으로 투표한다. 은행은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나 직장을 잘 다녀 돈벌이가 좋아, 신용이 좋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대출하려 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투자회사들은 아무 주식에나 투자하지 않고 성과 좋은 기업주식만 골라 투자한다. 기업은 아무나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학교 성적도 좋고 경험이 더 많고 인성까지 좋은 장래 훌륭한 기업가가 될만한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럼, 근로자는 어떤가? 근로자 역시 봉급도 많고 미래 전망도 좋은 기업만을 지원한다. 시장은 집합적으로 이러한 참여자들을 평가하여 성과가 좋은 개인과 기업들만을 선호하여 돈으로 투표한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경제제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자생존의 진화과정에서 체화된 인간의 선택본능 때문에, 시장은 태생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창발적 발전의 동기를 부여받고 살아남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로 진화한 것이다.

시장경쟁을 싫어한다, 억강부약하겠다고 유세장에서 목소리 높이고 골목시장에서 보여주기식 반찬거리 좁히는 정치인들도 사생활로 돌아와 자기 돈으로 시장 가면 중소기업제품보다 대기업제품만을 선호한다. 물론 이런 표리부동한 우리 인간의 선택본능 때문에 시장이 변창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제 선진국도 넘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논의를 정리하면 박정희 시장관을 노벨상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시장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차별화 정책과 제도는 창발적 경제발전의 필요 조건이다.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부든 정치든 모두가 인센티브차별화에 참여할 때만이 경제창발이 가능하다. 시장과 기업은 태생적으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화(신상필벌)하려고 발버둥치는데 철밥통인 정부나 정치가 성과를 무시하고 억강부약하겠다고 반차별화정책과 제도를 강요하면 시장과 기업은 죽고 경제는 하향평준화의 길을 피하지 못한다. 박정희식 차별적 인센티브 사상을 살려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역으로 성과를 무시하거나 역차별하는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 된다.

국민들이 각자 이룬 성과를 무시하고 성과든 기회든 평등하게 만든다는 평등주의 사회는 무슨 감언이설을 하던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인 태업(sabotage)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경제 정체를 피하기 어렵다. 성과에 따라 차등화되는 사회는 양화를 키워내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회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여 시장도 경제도 죽음으로 간다.

2500년 전 “서로 다름 속의 화합은 생명의 길이요, 강요된 획일적 평등은 불화와 죽음의 길”이라 설파한 중국의 성인 공자와 역사의 성인이라 불리는 사성(史聖) 좌구명의 철학을 중국철학의 진수로 내세운 중국 사회가 일찍이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내건 모택동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다 큰 곤욕을 치르고 덩소평의 박정희 철학을 모방한 “스스로 돕는 부자가 앞서 간다는 선부론(先富論)개혁”이후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 또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1966년 취임 세 돌을 맞은 박정희 제6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아DB 제공)

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의 경제적 차별화 사상을 민주화 이후 배척하고 사회주의 이념이나 다름없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걸고 이젠 대농고 공산주의식 억강부약 한다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더없이 궁극해진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 정책은 노력과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는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람의

하기 때문에 이런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거래비용은 인간이 불완전한 것처럼 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의 내부거래는 합의가 아니라 명령으로 실행된다. 기업의 경우는 조직의 위계가 명령을 통해 자원을 배분한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내부거래는 시장거래보다 거래조건의 합의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래비용이 높은 복잡한 거래를 내부화하여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 결국 기업은 그 내부거래를 비민주적인, 즉 명령에 의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바로 이점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만일 기업 내부에서도 시장처럼 합의에 의해 민주적으

성과 무시, 배분 중시하는 평등주의는 실패

마음을 움직여 성공으로 유도한 것이지만, 소위 사회정의라는 이름하에 성과를 무시하고 배분하는 평등주의는 인간의 본능적 경제정의 감에 역행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정희의 자본주의 기업경제관

1. 시장과 기업조직, 무엇이 다른가?

경제학은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마치 시장이 신격화되어 경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폐단도 생긴다. 시장만 있으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여기는 극단주의도 생긴다. 그러나 현실경제의 자원배분은 시장(Market)뿐만 아니라 조직(Organization)이 담당한다. 민간 조직의 핵심은 바로 기업조직이다.

시장과 조직은 모두 자원배분 장치이지만 그 배분 방식이 다르다. 시장거래는 거래 대상 재화의 내용과 가격 등 각종의 복잡한 거래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로 자원배분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면 기업은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좌파 학자들이 주장하듯 기업은 민주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영민주화나 경제 민주화 주장들은 기업의 태생적 본질을 모른 무식한 소리이다.

더 나아가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기능은 또 다른 놀라운 기능을 선사한다. 박정희식 창발적 경제발전은 서로 만나 협동의 시너지를 높이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기능이 바로 기업을 창발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도와준다. 협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적 인센브장치를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장(CEO)의 명령에 의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을 위한 제반 합의에 수반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업이 보다 효율적인 시너지창출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창발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차라고 할 수 있다.☞

‘태극5남매’ 금빛 스케이트 스타트

스포츠 코너

밀라노 동계 올림픽 2월 6일 개막



최규섭

(사)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동백꽃은 겨우내 눈바람 맞으며 핀다. 모진 생명력으로 바닷바람을 견디며 붉은 꽃을 피운다. 인고 끝에 피어난 그 모습은 애처롭고 애뜻하다. 푸른 잎새 사이로 수줍게 드러낸 모습에선, 뜨거운 가슴이 엿보인다. 매서운 바람도 그 꺾이지 않는 저항에 저만치 물러선다. 애오라지 희망의 꽃을 피우려는 그 열망에, 어찌 쉬이 다 가설 수 있으리오. 고난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환희로 가득 찬 새 생명이 탄생한다. 동백꽃이 펼치는 향연에, 온 누리가 붉은빛으로 물들어 간다.

가자,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로!

얼마나 기다려 왔던 4년이던가. 인고와 각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은 시간의 나날이었다. 힘에 부칠지라도 쓰러짐을 거부한 ‘태극 전사’들이다. 고난을 저어하지 않고 담금질에 온 힘을 쏟았다. 꺾이지 않고 씩씩한 기상을 드높이려는 열망을 키우고 다졌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 그 순간을 꿈꾸고 그리며 열정을 불살랐다. ‘비상의 그 날, 온 누리에 떨칠 빛나는 결실을 올리고 승전가를 한껏 드높여 부르리라.’ 다짐을 거듭하며 투혼을 불태웠다.

마침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2월 6~22일·현지일자)의 막이 오른다. 지구촌 온 가족이 즐길, 은반과 설원에서 펼쳐질 대축제다. 4년을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려는 뜨거운 갈망이 맞부딪칠 격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태극 전사들의 기필코 정상을 밟겠다는 웅대한 뜻은 천지를 뒤덮고 대지를 녹일 듯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2월6일 개막한다. 한국은 ‘8년 주기 전설’을 다시 쓸지 주목된다.(IOC홈페이지)

하다. 그들이 흘뿌린 땀방울을 바탕으로 거둬들일 과실을 생각하노라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2010 밴쿠버→2018 평창→2026 밀라노-코르티나, 되풀이될 ‘승전가’

대한민국은 동계 올림픽에서도 혁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24 샤모니 대회 때 첫걸음을 내디딘 동계 올림픽에서, 역대 통산 15위(금 33, 은 30, 동 16개)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표 참조). 하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세계 강호의 반열에 올라있다. 하계 올림픽 통산 순위에서도 15위(금 109, 은 100, 동 111개)에 올라 있는 한국이다.

왔다. 동계 올림픽에선, 1992 알베르빌 대회 때 비로소 첫 메달을 땀다. 쇼트트랙에서 김기훈이 두 개의 금(남자 1,000m·남자 5,000m 계주)을 결실하며 용솟음쳤고, 김윤만(은·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과 이준호(동·남자 쇼트트랙 1,000m)가 호응했다. 그 뒤 치러진 여덟 번의 동계 올림픽에서도 꾸준히 금빛을 수놓았다. 이처럼, 동계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세계 강호로 우뚝 섰다.

한국이 동계 올림픽에서 뽑낸 강세는 종합 순위에서도 읽힌다. 1992 대회부터. 2022 베이징(北京) 대회까지 아홉 번의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또다시 8년이 흘렀다. 그때의 감동과 환희를 재연할 열망을 불사르는 한국이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는 염원이 실현될 ‘약속의 땅’이 되리라. 마음은 벌써 온몸을 전율케 할 그곳으로 달려간다.

금빛 질주 & 연기 펼칠 ‘태극 5남매’ 한국 재도약 선봉장

들리는가, 저 함성이! 작히나 힘차고 우렁찬 부르짖음인가. 빼어난 몸놀림과 박진감 넘치는 몸짓은 절로 손뼉을 마주치게 한다. 메달을 향한 질주는 모두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린다.

벌써 눈앞에 그려지는 그 날의 태극 전사의 질주와 한국민의 환호와 작약이다. 물론, 누가 최후에 승자의 미소를 지을지는 오직 신만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

최민정·김길리 등 쇼트트랙 선봉

메달 획득 연륜을 보면, 동계 올림픽이 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이 엿보인다. 하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1948 런던 대회 때 첫 메달을 수확했다. 역대 김성집(미들급)과 복싱 한수안(플라이급)이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그 뒤 열린 열여덟 번의 하계 올림픽(1980 모스크바 대회 제외)에서, 꾸준히 메달 사냥을 펼쳐

은 다섯 번이나 한 자릿수 순위에 올랐다. 1994 릴리함메르 대회(6위) 때 첫 단추를 꿰더니 1998 나고야(名古屋·9위), 2006 토리노(7위), 2010 밴쿠버(5위), 2018 평창(7위) 대회에서도 기세를 이어 갔다.

8년전 평창대회에서 최다메달 획득

특히, 최근엔 ‘8년 주기’ 상승세가 눈에 띈다. 2010 밴쿠버 대회와 2018 평창 대회에서 한국은 전설을 썼다. 먼저, 8년 전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역대 동계 올림픽 출전 사상, 최다 메달(17개·금 5, 은 8, 동 4) 획득의 새 역사를 창출했다. 8년 만에 다시 부른 ‘대풍가’였다. 역대 최고 순위(5위)에 올랐던 밴쿠버 대회(14개·금 6, 은 6, 동 2)를 총 메달 획득 수에서 능가하는 빛나는 결실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기에 4년간 인내와 도전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은 태극 전사들이 한껏 갈고닦아 온 기량을 펼치고 드높여 부를 개선가가 들려온다.

‘밀라노 대첩’을 일굴 주인공은 ‘태극 5남매’다. 최민정(28)·김길리(22)·임종언(19·이상 쇼트트랙), 최가은(18)·이채운(20·이상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등 빙상(氷上)과 설상(雪上)의 다섯 기대주가 선봉에 선다. ‘완성형 레전드’ 최민정의 돋보이는 안정감, ‘람보르길리’ 김길리의 폭발적인 질주, ‘남자 쇼트트랙의 보석’ 임종언이 펼칠 불굴의 투혼, ‘천재’ 최가은의 ‘여제(女帝) 등극’을 향한 비상과 곡예, ‘스노보드 아이콘’ 이채운이 보여줄 신기의 몸놀림 등을 앞세운 한국이 약속의 땅에서 터뜨릴 승전가는 이미 전주(前奏)에 들어갔다. ㉠

대한민국 동계 올림픽 메달 획득사

연도	개최지	메달				종합 순위
		금	은	동	총	
1992	알베르빌	2	1	1	4	10
1994	릴리함메르	4	1	1	6	6
1998	나고야	3	1	2	6	9
2002	솔트레이크시티	2	2	0	4	14
2006	토리노	6	3	2	11	7
2010	밴쿠버	6	6	2	14	5
2014	소치	3	3	2	8	13
2018	평창	5	8	4	17	7
2022	베이징	2	5	2	9	14
계		33	30	16	79	15

공존공영 美德 쌓고 福·행운 기원

2월 17일 민족 설날과 근하신년의 교훈



유한준
본회 부회장

조상·가족 소중함 되새기는 날

올해 민족의 설날은 2월 17일 화요일이라,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간 연휴가 이어진다. 본래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삼라만상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의미이며, 새해의 시작과 함께 자연과 인간의 삶이 다시 태어난다는 동양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설날은 개인과 사회가 새해의 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큰 명절로 지낸다. 명절의 의미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님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삶의 보루인 가족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날이다.

'설날'이 오늘날 민족의 명절로 되살아난 과정도 우리 민족의 수난 역사와 궤도를 같이해왔다. 음력설(구정)과 양력설(신정)의 이중과세(二重過歲) 논란 속에서 진통도 겪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을 펴면서 설날과 세시명절마저 가로 막았다. 그들은 우리 명절 때마다 떡방앗간을 폐쇄하고, 어린이들의 설빔까지 못하도록 억압했다.

광복 이후에도 공휴일, 비공휴일 문제로 오락가락하던 설날은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되어 1일간 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다가 1989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본명인 '설날'을 찾았고, 1999년 1월 1일 신정을 '1일 공휴일'로 축소하고, 구정인 설날을 '3일 연휴'로 삼았다.

명절의 의미와 세시풍속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茶禮)를 지내고, 성묘(省墓)하는 세시풍속이 전승된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산업전선에서 땀 흘리는 출향민들이 정성을 담아 마련한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행렬, 민족 대이동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고향을 고물가 속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쌀, 배추, 과일, 생선 등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뜨면서 국민생활과 설빔 차림에 적잖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설날 아침에는 종손이 중심이 되어 조상을 추모하며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성묘를 한다. 차례는 4대조까지 모시고, 5대조 이상은 시제 때 산소에서 지낸다. 명문 종가에선 차례 음식도 조율이시(棗栗梨柿)라 하여 대추, 밤, 배, 감 순으로 진설하거나, 여러 가지 다식(多食)을 쓰는 전통의례를 따르지 않고, 떡과 과일, 그리고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등 서너가지와 약주 정도로 간소하게 차린다.

설날 아침엔 떡국을 먹는데, 이를 세찬(歲饌)이라고 한다. 정초엔 널뛰기, 연날리기, 윷놀이가 이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다. 정월대보름날도 아침엔 부럼을 깨고, 오곡밥과 묵은 나물 반찬을 대보름 절식으로 여기는 풍속이 명맥을 이어갈 정도다. 오늘날엔 설 명절 의례, 세시풍속도 퇴색되거나 다양하게 변하는 경향이 짙다. 설 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거나, 고궁, 민속박물관, 민속촌 등을 가족단위로 찾아가 즐기는 풍속이 이어진다.

전통문화 보전과 설날 덕담

설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전'한다는 측면과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다. 덕담을 통해 서로의 평안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간존중·공존공영'의 미덕을 쌓아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전통적인 설날 세시풍속은 소망을 기원하는 의례적인 성격을 지녔다. 농본사회(農本社會)였던 옛날엔 설 명절이 하루에 그치지 않았다. 용어 자체는 정월 초하룻날, 하루를 가리키지

만 실제 명절은 선달그믐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설을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일컫는다. 설날은 새해 첫 날로서 의미가 깊은 반면, 정월대보름은 농경성(農耕性)을 반영하여 중요하게 여겼다. 농경국가에서 보름달, 만월(滿月)은 곧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만,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은 정초에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덕담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근하신년(謹賀新年)'의 복음으로, 온 누리에 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신년인사다.

근하신년은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인사로, '복(福)'은 하늘의 보살핌과

이달의 시

봄, 봄의 길목

한겨울 한파와 잔설
비집고 피어난 동백
그 선명함 속에
동장군도 고개 숙이고

강인한 생명력
아름다운 향기여!

그리움, 변치 않는
연정의 꽃술 전설
못 이룬 사랑을 담아
피워낸 2월의 동백

梅蘭菊竹 사군자
따뜻한 봄기운 전하는
양춘화기 봄꽃

봄, 봄의 길목에
피어오르는 뜨거운 열정
매화 향기 속에
봄꽃들 나래 펴리.

유한준

행운을 뜻하는 말로, 오래 전부터 두루 사용하는 새해 인사요, 전통적인 덕담이다. 첨단사회와 함께 민속세시풍속도 변하고 있지만, 설날 미풍풍속은 민족의 전통문화유산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전설

세시풍속기

24절기는 절묘하게 가고 온다. 동장군 흑한이 어느 새 꼬리를 내리고 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입춘(立春)이 2월 4일로 다가선다. 24절기의 첫 절기로 2026년 '새 봄의 시작'을 알려준다.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로, 올해는 2월 4일인데,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여긴다.

입춘 세시풍속으로 만복을 기원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이는 입춘축·입춘방·입춘서·입춘첩 등이 유행한다. 대표적인 문구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으로,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

긴다'는 뜻이다. 입춘이 되면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여러 가정에서 기복적인 행사로 입춘축(立春祝)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였다.

'입춘대길'을 오른쪽에, '건양다경'을 왼쪽에 붙인다. '입춘대길'은 '입춘을 맞아 큰 길운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건양다경'은 '밝은 양의 기운이 세워지고 경사가 많다'는 의미이다. 입춘방은 절기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각에 붙이는데 올해 입춘 시각은 2월 4일 오전 10시 46분이다. 입춘방은 우수(雨水) 전날에 땀다. 입춘 날 입춘절식을 오신반(五辛盤)이라 하는데, 다섯 가지의 자극성이 있는 나물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업입니다

자유, 민주, 공화의 기틀 위에 세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의 나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선대들이 세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한 지 5개월, 오직 국민의 손으로만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고사리손의 꼬마 기부자부터 대통령까지 각계각층의 국민께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념관을 적기에 건립하여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 및 발전사의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이 과업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습니다.

모금 계좌 (예금주: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농협	301-0334-1185-31	국민	815601-04-182916
우리	1005-104-553918	하나	109-910035-23404
신한	100-036-637911	새마을	9002-2034-6284-4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 김황식
고 문 | 박지만, 노재현, 김현철, 김홍업
추진위원 | 김군기, 김길자, 김명섭, 김석규, 박유재, 복거일, 손병두, 신영균, 신철식, 안병훈, 이영일, 이영훈, 이윤생, 이인호, 이장호, 이진만, 이창진, 인보길, 정용상, 조보현, 주대환, 한용외, 한화갑, 황성욱

#<건국전쟁>의 감동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액 100억 돌파!



*홈페이지 후원 환영 www.이승만재단.com

네이버, 구글에서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을 검색해 주세요

*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유일한 공식 모금 기관입니다

* 후원자 예우 등을 위해 후원하신 후 이메일로 (donation@rheesyngmanfoundation.or.kr)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Syngman Rhee Memorial Foundation

문의 02.777.0391

사연·사건으로 얼룩진 경찰서…사회공간 축소판

■ 詩窓에 비친 세상 / 사강은 시 ‘고해성사’ 2026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

고해성사

사강은

오늘 경찰이 내 집에 들어 닥쳤다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을 경찰이 했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분명 내가 해야 할 말 같은데 나를 연행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갑을 채우고 서로 데려갔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생각해 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그것들은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니까 이런 식이 맞는 것 같기도 죄는 나의 것이고 벌은 경찰의 것이라 했다 역할은 바뀔 수 없어서 그 사실 역시 바뀌지 않을 거라 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 놓고 나 먼저 말해 보라 했다 아무것도 알려 준 적 없으면서 대답하라 했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라 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말해 주지도 않고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라 했다 나는 드릴 말씀이 없었다 취조는 인정할 때까지 계속됐지만 알지 못하는 일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쌍하게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러자 유리창 건너편에 있던 다른 경찰이 들어오더니 증거가 없어서 풀어 드린다고 원래 법이 그렇다고 한숨을 뚝뚝 내쉬었다 이것도 어딘가 많이 본 장면 같아서 감사합니다 대신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왔고 경찰서는 문닫을 시간이 됐다 조사실 밖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가 바닥에 도착하자 더 이상 경찰서가 아니었다 그때 평생 지었던 죄가 모조리 기억났다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내일 자수할 예정이다

‘詩窓에 비친 세상’은 필자가 본지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2021년부터 2년 동안 연재한 콘텐츠다. 마음에 새긴 애송시 한 편을 소개하고, 좋아하게 된 연유와 시에 담긴 심미적·사회적 의미를 탐구하는 게 기획 의도다.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회우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박재삼 시인의 ‘소곡(小曲)’에 담긴 이미지를 절망적 현실에 빗대어 격조 높은 필치로 날카롭게 비판했다. 뒤를 이어 장석영, 박정진, 김택근 시인을 비롯하여 류철희, 구종서, 인보길, 김승웅, 김영식, 서광식, 고 박연호, 김동철, 문관현 회우 등이 지면을 빛내 주었다.

그 때의 추억을 추억하며 ‘詩窓에 비친 세상’이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필자는 애송시 대신 2026년 신춘문에 당선 시 한 편을 텍스트로 삼는다. 문학청년 시절 신춘문에 열병은 세월에 마모되어 식고 무뎠지만 가슴 밑바닥에 미열로 남았다. 신춘문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등단제도다. 문인이 되는 길을 제약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등용문이다. 김유정 김동리 최인호 이문열 등이 시대의 아픔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으며 소설가로 등단했고, 서정주 황지우 기형도 시인 등은 언어의 미학으로 시대를 노래하며 화려하게 등단했다.

새해 벽두 신춘문에 당선 작품들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세상에 첫 선을 보이는 신선한 언어들이 활어같이 싱싱하다.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한 시어들은 새벽 공기처럼 상큼하다. 문학의 가치가 삶에 지친 영혼을 위무하지 못하는 삭막한 시대에 밥이 되지 못하는 시를 쓰는 응모자가 늘어 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신춘문에 작품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읽기 불편하다. 활자로 읽어야 제 맛이 난다. 구독하는 신문이 한 가지 뿐이라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 매점에 들러 몇 부 샀다. 올해 당선 된 시들은 대부분 길다. 기니까 장황하여 문장이 발길에 걸린다. 쉽게 표현해

서 시가 어렵다. 심사위원들도 ‘전반적으로 시가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작 사강은의 ‘고해성사’는 산문시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단락이 있을 뿐 종지부도 없이 문장이 이어진다. ‘고해성사’는 ‘산문시가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의 리듬감을 가지면서, 산문시의 장점이라 할 서사성을 갖추었다’는 게 심사평이다. ‘명징한 메시지를 유연하게 풀어가는 능력과 희미한 상징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고해성사’는 개인적 고뇌가 사회성과 겹쳐 공감의 폭이 크다. 독수리 마크가 선명한 경찰서는 사건

개인적 고뇌, 사회성과 겹쳐 공감의 폭 커 특검 수사 받다 세상 등진 공무원 오버랩

기자들에게 낯익은 공간이다. 온갖 군상들이 술한 사연과 사건을 풀어 놓는다. 휴대 전화가 없던 시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 전화 한 통이면 당장 모가지야” 잡혀와 큰 소리 치던 진풍경은 사라졌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닥친 경찰에 수갑을 찬 채 연행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말해 주지도 않고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라’는 시구가 공권력 앞에 나약한 소시민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지난해 10월 특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죽음이 어른거리며 오버랩 된다. 그는 취조실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추궁 당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한다.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욕박지른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한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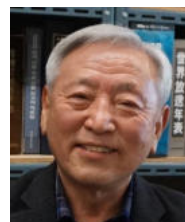
체코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는 왕비의 불륜 고해성사 비밀을 지키다 순교했다. 프라하 카를교 난간의 동상이 블타바강을 굽어보고 있다. (사진 이규섭)

지체 높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의혹이 불거지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발뺌 한다. 의혹이 드러나면 “아랫사람이 나 몰래 했다”고 꼬리를 자른다. 전형적인 책임 회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다.

경찰서라는 공간은 사회적 공간의 축소판이다. ‘나는 내일 자수할 예정이다’는 마지막 행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뒤틀린 사회의 구조적 귀결로 비쳐진다. 침묵해도 죄가 되고 말해도 의심받는다. 죄가

없어도 사과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체코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는 왕비의 불륜 고해성사 비밀을 지키다 순교했다. 프라하 카를교 난간엔 그의 동상이 블타바강을 굽어본다. 유해는 성 비투스 대성당(St. Vitus Cathedral)에 안치됐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려면 거짓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규섭

편집위원
전국민일보논설위원

‘천년 古都’ 경주서 아름다운 시간여행

나홀로 국내여행기 2박3일 불국사·동리목월 문학관등 관람

혼자 경주를 찾았다. 아내와 함께였다면 좋았을 텐데... 가슴 한 구석이 허허로웠다. 생전의 아내는 숨통이 탁 트인다며 아이들처럼 기뻐하곤 했다. 아침 9시58분, 서울역을 출발한 KTX가 상쾌한 아침 공기 속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회오리바람이 겨울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뿌연 먼지 같은 바람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다가 떨어진다. 부지런한 농부는 벌써 거름을 내었는가, 군데군데 들판 빛이 거뭇하다. 겨우내 틈 살갓을 추슬러 곧 아지랑이를 피워 올릴 참이다

동대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렸다. 내가 세계적 문화유산도시 경주를 여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첫 번째는 까까머리 때인 고 2 수학여행 때였고, 두 번째는 아내와 47주년 결혼기념 때. 남들처럼 우리 부부도 젊었을 때는 사느라 바빠서 함께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했다.

천년고도 경주에서의 아름다운 시간 여행, 그 첫 번째 방문지는 ‘동리 목월 문학관’. 불국사 정문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문학관에 들어서니 길 양 옆으로 우리나라 유명 작가들의 시화가 전시돼 있었다. 문학관은 입구에서 바라봐서 왼쪽이 김동리 선생의 전시실이고, 오른쪽이 박목월 선생의 전시관. 두 분 모두 경주 출신으로 한국문학사에 굵은 족적을 남겼기에 이를 기려 토함산 자락에 나란히 세웠다고 한다.

전시관 1층 이미지 홀을 지나면 양 편으로 두 분 작가 개개인의 생애와 생전의 습작 노트, 원고, 발간 서적 등 유품 900여점이 전시돼 있다. 목월 전시관에서는 선생의 육성 시낭송을 들을 수 있었다. 관람은 무료. 전시물을 보다 상세히 감상하려면 2시간 이상은 할애해야 한다.

다음날, 시티 투어에 나섰다. 오전 9시 50분, 관광 버스를 타고 맨 먼저 간 곳이 황룡사지.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서기 553년) 경주 월성의 동쪽에 궁궐을 짓다가 그곳에서 황룡(黃龍)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절로 고쳐 짓기 시작해 17년 만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서기574년 인도의 아카소왕이 금과 철 삼존불상의 모형을 배에 실어 보내 이것을 재료로 삼존불상을 만들게 됐고, 이 불상을 모시기 위해 진평왕 6년(서기584년)에 금당을 짓게 된 것이라고 한다.

선덕여왕 12년(서기643년)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9층 목탑을 짓게 됐고, 각 층마다 적국을 상징하도록 했는데, 백제의 장인 아버지에게 서기 645년에 완공 됐다. 술거가 그렸다는 ‘금당벽화’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서기1238년) 몽골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없어져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버스는 우리들을 대릉원으로 안내했다. 이곳에는 미추왕릉, 황남대총, 천마총 등 23여기의 고분이 밀집해 있다. 특히 자작나무 겹질로 만든 밀다래에 그려진 천마도와 함께 금관과 금제 허리띠 등 국보급 유물 수십 점이 발굴됐다.

천마총 내부는 공개하고 있어 해설사의 안내로



불국사 다보탑 앞에서의 필자.

들어가 신라인의 무덤 형식과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신라 제29대 무열왕(재위 서기 654~661) 무덤은 경주 시가지 서쪽의 선도산 동쪽 구릉에 있는 5기의 큰 무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었다. 아직 발굴조사는 안했으나 굴식 돌방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석가탑 앞에서의 필자.

텐데 이번엔 힘에 부쳤다.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갔다. 석굴암 앞에서 동해바다를 바라보니 은은히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석굴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 사원으로 김대성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불국사를 세웠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석불사(석굴암)를

아내와 동행했던 옛 추억 가슴뭉클

해설사는 “무열왕릉 앞에 세워진 석비(국보)를 받치고 있는 거북은 목을 높이 쳐 들고 발을 기운 차게 뻗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거북의 등에는 큼직한 별집 모양의 육각형을 새긴 후 등 중앙에 마련된 ‘비좌’ 주위로 연꽃 조각을 두어 장식했다. 머릿돌 앞면 중앙에 ‘태종무열대왕지비(太宗武烈大王之碑)’라고 새겨 놓아 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발길은 천년가람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향했다. 불국사는 서기 751년(경덕왕 10년) 당시 재상이던 김대성이 창건했다고 교과서에 실려 있다. 지금의 탑은 1973년 복원한 것이다. 해설사는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및 연하교, 칠보교 등 경내의 조형물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다. 신라 불교미술의 뛰어난 조형미에 감탄했다.

석굴암에 가려면 주차장에서부터 흙길 언덕 600여m를 걸어가야 했다. 예전 같으면 단숨에 올랐을

창건했다고 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택시를 불러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야경이 뛰어나다는 월정교와 첨성대를 먼발치로 관광했다. 월정교는 경덕왕17년(서기760년)에 건립된 다리다. 남천의 남북 쪽을 연결하여 남산과 왕궁을 잇는 교통로이자 화려한 왕궁의 다리였다. 2009년 길이 66m, 폭 9m, 높이 8m 규모로 복원했다고 한다.

첨성대는 2중 기단 위에 30cm 높이의 돌 27단을 쌓아올렸고, 꼭대기에 우물정자(井) 모양의 사각형 돌을 올렸다. 맨 위 정자석의 길이가 기단부 길이의 꼭 절반인 점 등 여러가지 과학적이면서도 신비함이 가득하다. 이밖에도 안압지 등 볼 곳은 많았지만 일정이 짧아 다음기회로 미뤄야 했다.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한 추억의 경주여행은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했다.☞

〈장석영 본회 명예회장〉

지구촌 80여곳 패키지·배낭·크루즈 탐방

‘에어워커’의 세계 여행 ①



이집트 카이로 인근 피라미드 앞에선 필자

실게 되었지요. 2020~21년 코로나 사태로 공백이 있긴 했지만 지난 25년동안 80여 차례 외국을 다녀 왔다. 그동안의 여행 이야기를 풀어 놓고 싶습니다.

우선 해외여행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과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배낭여행> 그리고 스스로 설계하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배에서 숙박하며 기항지 투어를 즐기는 <크루즈 여행>도 빼놓을수 없지요.

저도 처음엔 패키지 혹은 배낭 여행을 했지만 최근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비행기, 호텔, 일정을 모두 여행사나 동호인에게 맡기면 비용도 절약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나이 70을 넘기고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과 어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패키지 여행>

98년 신문사를 퇴직한 후 처음 여행한 곳은 태국이었습니다. IMF로 경기가 쪼그라들어서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40대 후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앞날을 설계하기 위한 <나홀로 여행>이었지요. 영어도 짧고 해외여행 경험도 거의 없었기에 낯선 동행인들과 함께하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의 15여개 지역, 일본의 10여개 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발칸, 탄탄 등 3~5개 나라를 묶은 패키지 여행과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튀르키예, 인도, 이집트 단일 국가 여행도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것이었지요. 그밖에 호주-뉴질랜드, 미국-캐나다를 묶은 상품도 이용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여행과는 담쌓고 살아온 <우물안 개구리> 신세였습니다. 경향신문에 입사해서도 10년 동안 편집부 내근 신세라서 좀처럼 바깥 세상 구경을 못했지요. 이후 체육부에서 10여 차례 해외취재를 다니며 낯선 이국 풍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체육관)과 숙소를 오가면서 경기만을 지켜보고 기사쓰는 단조로운 출장이라 해외 여행의 묘미를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1998년 2월 IMF 여파로 신문사를 퇴사한 후 비로소 해외여행에 관심을 갖고 틈만 나면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지요. 2020~21년 코로나 사태로 공백이 있긴 했지만 지난 25년동안 80여 차례 외국을 다녀 왔다. 그동안의 여행 이야기를 풀어 놓고 싶습니다.

아내도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거의 대부분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의 경우 비행기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패키지 상품이 많지만 자칫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강요하는 바람에 여행의 기분을 잡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배낭 여행>

2012년 11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갔던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전으로 이사온 이후 주말마다 동네 산악회를 따라다니며 등산에 맛을 들이던 때였습니다. 이웃 동네 산악회에서 안나푸르나 트레킹 회

원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지요. 때마침 제가 그해 나이 61세가 되었던지라 <회갑 기념>이라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4300m 고지까지 고산증 없이 오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와 함께 과감히 도전했습니다. 포터가 짐을 옮겨주기 때문에 어려움없이 오를 수 있었지요. 이후 중국 차마고도와 내몽골 트레킹,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트레킹 동호인들과 배낭여행 형태로 다녀 왔습니다. 비용도 실비만 정산하고 쇼핑 강요가 없어 즐거운 기분으로 다녀 올수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에 맞들려면 이것만 고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선했던 분들이 점차 상업화 되어가는 모



세계일주 크루즈여행 중 빙하가 떠다니는 남극해에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전망대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습을 보여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유여행>

2015년 모 여행사의 <여행 설계사> 교육을 받고 여행업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금방 그만두기는

안 일주하기도 했습니다. 고교 동창 셋이서 토론토에 이민간 친구를 찾아가 캐나다 여행도 자유여행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네요.

<크루즈 여행>

2011년 미국으로 이민간 처형의 딸 결혼식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중

2024년 98일간 세계일주 크루즈 큰 경험

했지만 그 덕분에 몇차례 지인들과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게 돌로미테-스위스 17박 18일, 미서부 그랜드 14박 15일 투어는 제가 기획하고 예약하고 진행한 투어였습니다. 일행은 둘다 저포함 6명.

승합차를 렌트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일정에 맞추어 명승지를 둘러보았지요.

유난히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 덕분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고교 동창들과 규슈 올레길도 두차례, 홍콩 트레일도 한차례 다녀 왔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떠난 삿포로와 오사카 여행, 친구부부와 넷이서 오키나와, 야쿠시마도 즐겁게 다녀 왔지요. 2024년엔 친구부부와 그리스를 20여일동

남미 크루즈에 동행한게 처음이었습니다. 3자매가 부부 동반으로 칼리브해 크루즈를 1주일 동안 다녀 왔습니다. 배안의 숙소에서 자면서 기항지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거지요, 매일같이 짐을 꾸릴 필요도 없고 비행기타러 다니는 부담도 없어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후 알래스카, 에게해를 다녀온후 2024년 겨울엔 97박 98일 일정의 세계일주 크루즈(남반부)를 다녀 왔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를 두루 돌아보고 남극해를 유람한 제 생애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오는 4월 초 두 번째 세계 일주에 나섭니다. 이번엔 지구 북반부를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

<박진환 J & J 미디어 대표>

‘민주화 상징’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이되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신병 치료 중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민주화의 산증인으로 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자, 정치가였다. 서울대 사회학과 72학번으로 입학한 이래 ‘DJ내란음모사건’, ‘6월항쟁’ 등 한국역사의 한복판에서 일관되게 민주화운동의 전략가이자 실천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민주화 이후 DJ·노무현·문재인 캠프를 총괄해 민주진영의 대선 승리에도 기여했다.

오늘날 한국정치가 이 정도나 민주적 외양과 꼴을 갖춘 데에는 그의 역할과 공이 컸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의 별세로 한국 민주주의는 또 한 시대가 갔다. 그는 그러나 평소 괄괄한 성격과, 강한 자기 확신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충돌도 적지 않았다. 평소 ‘버럭 해찬’이란 소리를 들었고, 민주세력이 최소한 20년은 집권해야 한다는 ‘20년 민주집권론’을 주창해 보수진영의 공적 1호로 꼽히기도 했다.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끝으로 정계를 떠났던 그는 민주 정부와 세력을 아우르는 원로로도 꼽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맞담배’를 피웠던 인물로 유명하다. ‘친노 좌장’이란 수식이 그 어떤 타이틀보다 그를 정확히 묘사한다.

그는 7선 국회의원이자 DJ정부의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당에서도 원내부총무부터 당무기획실장, 최고위원, 당대표까지 요직을 거쳤다. 사실상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DJ·노무현·문재인 대선 승리 앞장

유시민 작가는 고인을 가리켜 “예나 지금이나 공적(公的)인 사람”이라고 했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적과 구금, 투옥과 고문 등의 고난이 따랐지만 자세는 한결같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1952년 7월 10일 충청남도 청양군 벽천리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일제시대 일본에서 유학한 아버지 이인용씨는 창씨개명을 거부할 정도로 주관이 뚜렷했다고 한다. 이 면장 다섯째 아들로 통했다. 국민학교 졸업 후 상경한 그는 덕수중·용산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이듬해 사회학과로 과만 바뀌 다시 입학했다. ‘72학번 이해찬’은 사회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시대가 도와주지 않았다.

대학에 재입학한 해 10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1974년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되고 학교에서 제적된다. 과거 50년 넘게 이어진 보수 우위의 국내 정

치 지형을 깨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그의 신념은 정치적 반대 진영에겐 상당한 도전이 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인은 민주당이 최소 20년은 집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20년 집권론’을 설파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적 안정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정책적 자신감을 보여주었다는 당내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인 정권 교체 가능성을 무시한 독선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진영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오늘날 그가 보수진영의 공적 1호로 지목되고, 보수와 진보가 상생보다는 적대와 대결의 형태로 굳어진 데에는 그의 20년 집권론이 한 역할을 했다는 시선도 있다.

이재호(본회 신문편집위원장)



Zoom in

하얀 눈밭 수 놓은 스키어들의 겨울



하얀 설원위로 가족의 하루가 천천히 펼쳐진다.

아이의 작은 손을잡고, 부모는 속도를 맞춘다. 처음 미끄러지는 순간의 두근거림, 넘어져도 웃음이 먼저 터진다.

형형 색색 헬멧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눈처럼 흩날린다. 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고 어머니는 사진속에 이겨울 스키타는 모습을 담

아낸다.

조금더 익숙해진 스키어들은 슬로프를 가르며 멋지게 활강하고 있다. 속도와 온기, 스릴과 가족의 온화함이 같은 설원위에 나란히 놓인곳. 흥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의 겨울은 함께라서 더욱 빛난다.

정재필(본회 부회장)

하얀 캔버스에 황금빛 노을 담고 싶다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하얀 夕陽

어느새 흘러간 세월을 돌아보니
남은 건 하얗게 빛바랜 캔버스 한 장
무슨 그림을 그렸던지 기억이 아련하고
사랑 미움 희로애락이 다 꿈이었나

정동진 찬란한 일출에 전율하고
석모도 황금빛 석양에 황홀했던
설렘은 어디 가고
순수의 백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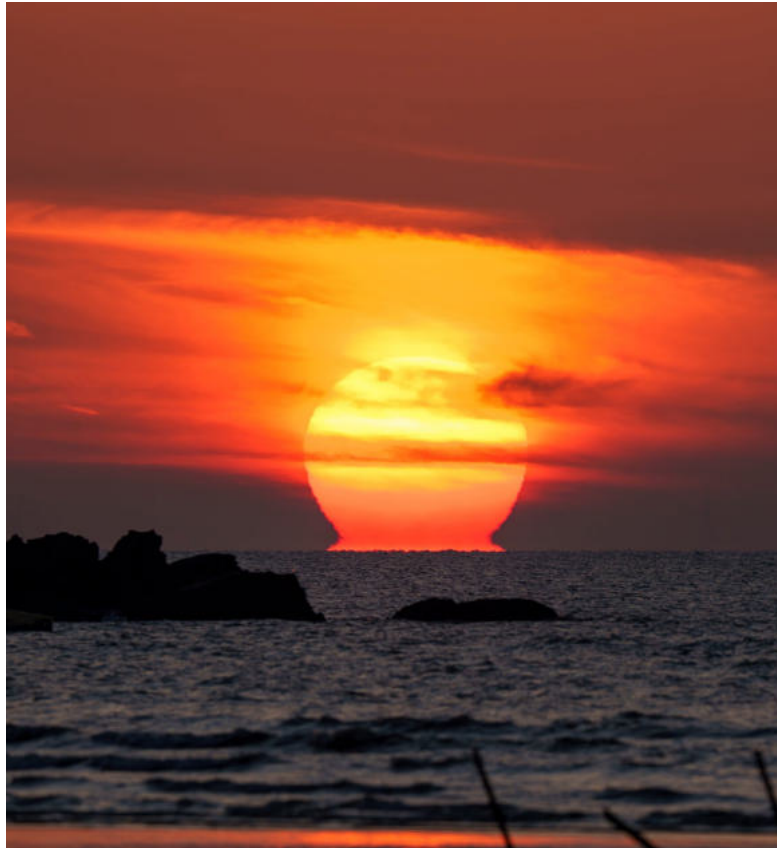
남은 시간은 아직 창창하고
하고픈 일은 끝이 없으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
지난 날 치열하게 불태웠던
삶을 잊게 한
힘으로 비우고 또 희망으로 채운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운명에 감사하고
희디희게 변한 노을에 머리 숙여야지
삶은 캔버스에 그리다 지우는
다만 그림인 것을.

이 시는 퇴직한 후 문득 지난 세월의 허무를 느끼며 쓴 자작시다. 석모도에 서 바라보던 찬란한 일몰이 순간에 수평선 너머로 잠겨버린 직후의 공허한 심경 같았다.

어제 누구한테 송금할 일이 있어서 은행 ATM기계로 입금한 후 송금했다는 문자를 수신인에게 보냈다. 돌아온 답은 “감사합니다. 어르신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였다.

생전 처음 어르신이라는 칭호를 들으니 너무 생소하게 들렸다. 이제까지



노을을 한 획이라도 그릴 수 있을까. 하얀 백지 위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릴 그림은 은은하고 반짝이는 흰색일까.

그런대로 사회활동하면서 직함으로 불렸고, 학교 동문들에게서는 이름이나 ○○○동문으로 불렸는데 갑자기 몇십 년 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곰곰 다시 생각하니 어르신이란 칭호가 맞는 말이다. 서운할 말이 아니다. 다만 낯설 뿐이다. 존칭어인 어르신이란 말에 놀란 이유는 아직도 내 마음은 젊었다고 착각하는 까닭이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이 나이에 착각인 걸 알고

있다. 그러나 30살 때 나는 건강한 남자였고, 퇴직 후 고교 동창회보 편집장으로 분주다사하게 지내면서 60세를 보냈다. 이후 이젠 그만 쉬고 싶어서 여생을 보너스로 여기자고 사퇴하고 여행과 신앙생활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평균수명이 70세 이상 살기가 어렵다던 그 시절, 고회를 맞았다. 나는 그때가 이젠 정말 내 인생의 석양이라 믿었다.

한다. 물론 수백 명이 모인 단체이고 각자 성격과 입장 차이가 있어서 어설픈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건 그저 티끌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무엇을 얻으려는 자리가 아니라 회우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려 애썼지만 불만을 느낀 회우도 많았을 것이다. 내가 짊어지고 알고 평생 지낸 감기 독감도 신기하게 그 시기엔 작별을 고해서 4년간 하루도 결근과 휴가를 보내지 못했다. 그렇게 70대의 보너스 시간은 충실히 채워져서 그저 모든 회우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내가 다닌 절의 주지스님이 사주를 잘 보신다고 소문 나있는데 오래 전 내 사주를 보시고 만80세에 죽겠다고 하셨다. 그게 작년이라 1월 1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한해 동안 할 일은 신변 정리하는 일이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과 옷을 다 정리하고 버리거나 새 주인을 찾아주었다. 연말에는 사후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과 재산목록을 은행 계좌번호까지 다 쓰고 공증 받아서 한 곳에 제출했다. 다 버리거나 버리기로 서약하고 나니까 홀가분해졌다. 작고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임종 전에 남긴 시가 생각났다.

모진 세월가고 / 아아 편안하다/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대한언론인회서 ‘아름다운 석양’ 그릴터

쓴 웃음이 났다. 그러다 곰곰 생각하니 병약했던 내가 어르신이란 말을 들을 때까지 살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신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유독 감기를 달고 살았고 초등학교때 부터 내내 옆 동네 병원도 30분 거리인데다 약국도 일찍 문을 닫아서 치료도 쉽지 않았다. 어느 때는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숨 쉴 틈이 없어서 금방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겨울에 기를 쓰고 한참 걸어서 학교에 결석 지각없이 개근했다. 그러면서 나는 30살까지만 살 거라고 믿

고회는 ‘인생고래회’에서 유래한 줄임말로, 그 뜻은 ‘사람이 일흔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문 일이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데, 이 표현은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곡강시(曲江詩)」에서 유래한 식귀라고 한다. 그 70세에 뜻하지 않게 대한언론인회 사무총장이란 직책을 맡아서 4년간 내 수명은 다시 연장됐다. 그 기간은 바쁘지만 열심히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다.

나이도 잊었었다. 남은 생을 보너스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채웠다. 그 당시 나를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던 많은 회우들에게 감사

법정 스님도 무소유의 해탈을 강조하셨다. 그런데 멀쩡하게 또 한 살 더 먹고 부회장 겸 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컴백하니 부담스럽고 그 주지스님 말은 틀렸는지 나의 석양은 아직 수평선 너머로 쫓겨 사라질 때가 아닌 가보다. 노을이 바다 건너 수평선 위에서 잠시 천지를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비치다가 사라지듯이 앞으로 3년간 나의 하얀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황금빛 노을을 한 획이라도 그릴 수 있을까. 하얀 백지 위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릴 그림은 은은하고 반짝이는 흰색일까.☞

회우 칼럼

심장수술...중환자실에서 찾은 새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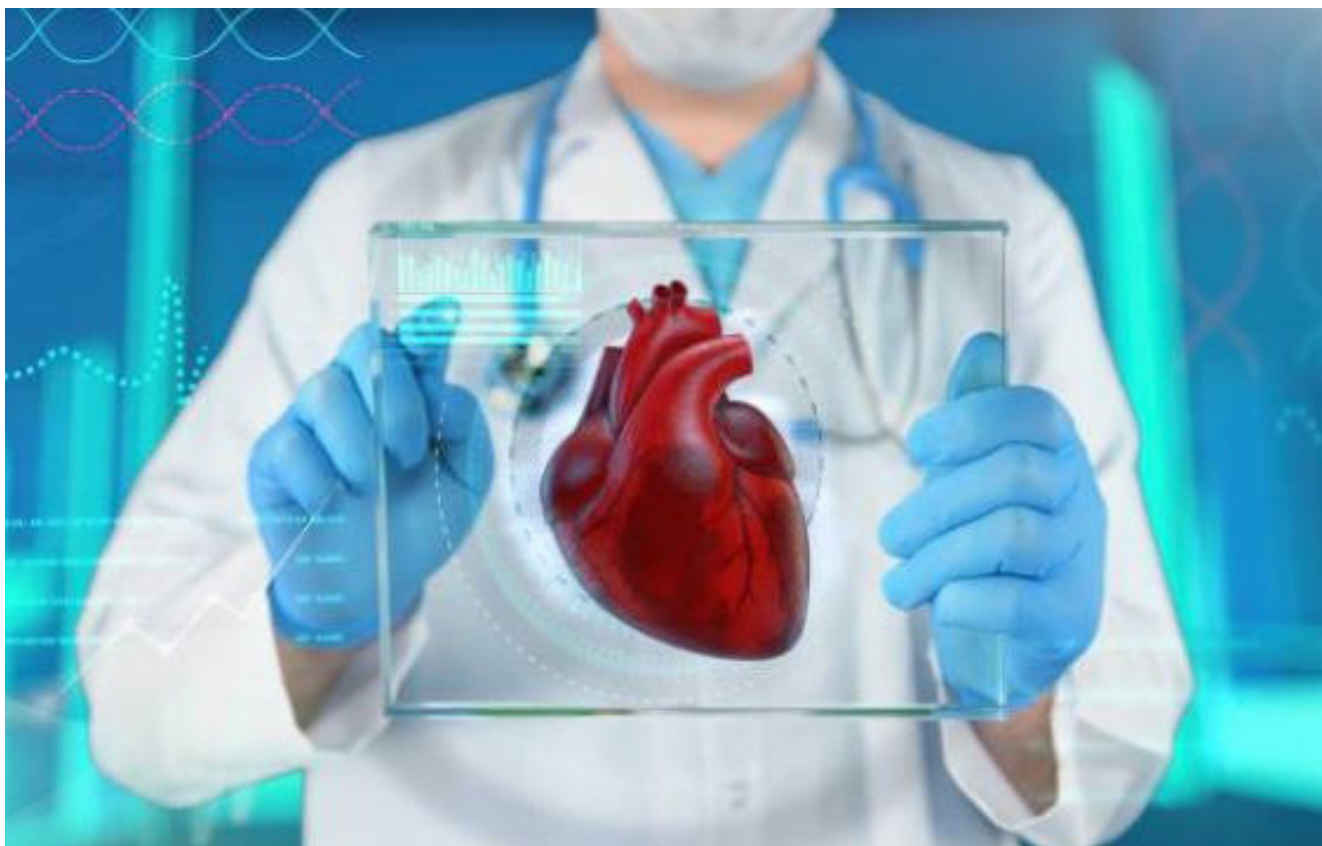
윤재홍
가나문화콘텐츠그룹
부회장
전 KBS제주방송총국장

필자는 지난해 거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다. 6월 20일부터 중환자실에서 두달만에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5개월 20일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해 자택으로 온 것은 12월 13일. 한마디로 감옥에서 석방된 기분이었다. 중환자실은 죽음의 공포와 괴로움으로 지옥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종 주사기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살았다.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간호사들이 혈압과 맥박체크는 물론 수시로 주사를 놓았다. 필자의 수술은 심장에서 피를 내 보내는 이미 파손된 동맥 혈관을 정리하고 인공 동맥 혈관으로 바꾸는 어려운 수술이었다. 수술 시간만 10시간이 넘었다. 깨어난 필자에게 담당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만,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공포는 며칠 동안 더 계속됐다. 20여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희망적인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필자는 중환자실의 고통이 너무 심해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다. 필자는 담당의사에게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떠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가 혼이 났다. 당시에는 너무 괴로워 그냥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눈감고 그 길을 택하고 싶을 정도였다. 더구나 수술 후에 갑작스러운 의식변화와 함께 주의력, 인지 기능 장애가 오는 섬망증상까지 겹쳐 더 괴로웠다. 섬망증상은 꿈속의 일이 현실과 일치된 것처럼 나타나는 착각 현상이다. 지금도 그때 섬망증세로 꾸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일반병동으로 옮기면서 몸무게는 11kg이 빠졌다. 허벅지와 종아리는 근육이 모두 사라지고 무릎뼈와 가족 밖에 남지 않았다. 전혀 걸을 수도 없었다. 수술한 병원에서 두달 13일 만인 9월 3일 경기도 고양시 향동 포레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처음 경험한 요



심장수술 등을 받느라 6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야했다.

양병원도 여러가지로 불편했다. 화장실도 남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영상으로 가족 친지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지난 해 연말 퇴원해서 연회동 자택

고향의 우리 조상들의 묘는 누가 돌볼 것인가?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집안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집

요양병원 재활치료 중 홀로걷기 성공

병실 하나에 요양보호사1명이 환자 6명을 돌보았다. 환자의 평균나이는 80대에서 90대 초반. 환자절반이상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사용해 처리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초저녁 8시에 전깃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한다는 규정. 새벽 5시에 일어나 9시간의 긴 잠을 자도록 한 것. 모든 환자가 자기 전에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 모든 환자들이 깊이 잠들어야 요양보호사들도 충분한 잠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필자는 수면제를 끊었다. 그리고 병원휴게실에서 책을 보거나, 운동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한 뒤 밤 11시에 잠이 드는 방식으로 건강을 챙겼다. 요양병원에서 나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물리치료사의 교육을 열심히 받았고, 목숨 걸고 혼자걷기 위해 노력했다. 돌 지난 아기처럼 아장아장 걷고 또 걸었다. 혼자 걷기에 성공하자 너무도 기뻐서 그 모습을 핸드폰동

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들어서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사랑하는 아내를 요양병원에 혼자 두고 집에 돌아오니 죄인이 된 것 같았다. 부부가 함께 썼던 침대와 가구들을 보면서 아내 생각에 눈물이 났다. 두 아들은 수술 전부터 심장내동맥파열수술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장례준비까지 했다고 한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긴 후 두 아들도 만났다. 두 아들은 고향인 전남 영암에 미리 준비된 가족묘지가 너무 멀다면서, 후손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서울 가까이에 모시겠다고 했다. 필자는 눈앞이 캄캄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필자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20여 평 규모의 납골당 평장으로 손자들은 물론 다른 후손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터였다. 현재 그곳엔 할아버지 부부와 필자의 아버지 3형제 부부, 사촌 형들이 안장돼 있다. 두 아들의 주장대로 필자부부만 서울근교에 안치된다면

안이 합심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터다.

이번 필자의 투병칼럼은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119소방구급차를 요청한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려면 먼저 119소방구급차의 요원들과 소통해야 한다. 소방요원들은 환자를 싣고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병원응급실에 전화하며 수송한다. 큰 병원응급실은 환자들이 많아 진료를 받기 어렵고 너무 작은 병원은 응급조치가 어렵다.

따라서 평소 사하는 곳에서 가까운 2차병원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필자가 겪었던 중환자실의 공포 속에서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담당의사와 병원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소동파 “복어는 목숨과 맞바꿀 맛”

맛 순례 ①

단단한 육질·쫄깃한 식감 ‘으뜸’



이병대
본회 고문

날씨가 영하를 넘나드는 계절에 얇은 복어회 한점을 미나리에 싸서 따끈한 ‘히레사케’ 한잔을 곁들이면 더 이상 무슨 행복을 바라겠는가.

복어는 한자로 하돈(河豚). 선사시대 이래 인류의 먹거리였던 ‘복’은 어로기술이 낙후됐던 옛날에는 산란을 위해 봄 강을 거슬러 오르던 황복이 복의 전부인줄 알았다.

배가 둥그렇게 부풀은 모습이나 ‘쿠쿠’하고 우는 모습이 돼지를 닮아다 해서 그렇게 불렸다. 복어하면 소동파가 떠오른다. 그가 황주(黃州)에 귀양갔을 때 황복의 맛을 보고 ‘목숨과 맞바꿀 맛(也值得一死)’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의 이런 시도 있다. ‘썩이 땅을 덮고 갈대 새순은 짧는데 / 이때가 복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라네(正是河豚欲上時)’. 정약용도 강진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어촌에서는 복어만 좋다고 하네(漁家只道河豚好)’. 미식가였던 허균과 이덕무는 맛이 좋지만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고 경계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복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있다. 미나리와 같이 먹으면 독이 없다’. 복어의 단단한 육질에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은 어류 가운데 단연 독보적이다. 특히 크고 육질이 뛰어난 참복의 ‘회’나 ‘탕’의 맛은 환상적이다. 복어회는 두께가 얇을수록 맛이 좋다고들 한다.

일식당의 조리사 수준은 복어회 ‘사시미(刺身)’로 가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요즘 복어집은 ‘탕과 맑은 국’만 있고 회를 파는 집은 거의 없다. 60년대말 조선호텔 건너편에 일식집 ‘미조리’가 있었다.

이 집은 일제 시대때 한국인으로서 일본군의 최고위 장군이었던 홍사익(洪思翊) 중장의 요리사가 귀국하여 차린 집이다.



나도 그 맛에 감탄했었다. ‘복어 사시미’는 그때도 비쌌지만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지금은 신라호텔 일식당이나 특급호텔에 가면 좋은 ‘복어 사시미’를 즐길 수 있겠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퇴직 언론인에게는



한다. 제주에 여행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다금바리만 찾지만 사실은 복어가 최고의 제주 생선인 줄 모른다.

보통 두 사람이 1kg짜리 참복을 잡아 회를 뜨고 맑은 국을 끓이면 실컷

어 요리의 종주국이 됐다.

‘이토’의 복어 요리 사랑은 특별했다. 조선 말 동학혁명이 갖고 온 청일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회담이 열린 곳이 ‘시모노세키’ 바다 프론트에 있는 복어 요리집 ‘순반로(春汎樓)’에서였다.

일본의 ‘이토’와 청국의 ‘이홍장(李鴻章)’이 직사각형 테이블에 머리를 맞댔던 복어 요리 식당 방은 현재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시모노세키’에는 일본 복어 수요의 80%를 공급하는 어판장이 있다. 시민의 주 수입원이 복어이다 보니 시의 맨홀 등에 복어를 새겨 넣는 등 8복어 홍보물이 넘쳐난다. 놀랍게도 그 위험한 복어 알이 제일 맛있다고 한다.

일본 ‘이시카와(石川)’ 현의 특산품이 복어알 조림이라고 한다. 까치복알을 소금에 절이고 쌀겨에 묻어 삼년을 묵혀 먹는다고 한다.

나도 먹어 본 적이 있다. 70년대 초 충무로 어느 일식집 ‘다이’에 앉아 술을 마시는데 조리사가 얇게 썬 어란 한 점을 주었다. 나는 송어 어란으로 알고 먹었더니 조리사가 복어 알이라고 말해 크게 놀랐었다.

조리사는 독을 제거한 어란이라며

복어회 한점에 ‘히레사케’ 한잔 겨울철 별미 회·맑은 국·불고기·찜·찜질 등 요리법 다양

언감생심(焉敢生心), 그림의 떡일 뿐이다. 복어 요리는 회, 탕 또는 맑은 국, 불고기, 찜, 튀김, 찜질무침 등 다양한데 1, 2월에 잡히는 밀복에서 나오는 수컷 곤이도 별미이다.

탕에 넣으면 마치 연두부 같기도 한데 식당에 따라서는 양념 조리를 해서 내기도 한다. 복어 지느러미를 구운 소위 ‘히레’를, 데운 청주나 소주에 담가 마시는 ‘히레사케’나 ‘히레소주’도 별미이다. 술이 덜 취한다는 얘기는 아마 복의 독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참복이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제주 성산포 앞 바다라고

먹는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동해안 주문진이 복어 주산지로 바뀌고 있다.

복어의 독성 ‘테트로도톡신’은 복어 알에 가장 많은데 청산가리의 5배 정도 강하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집결했던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많은 병사들이 이곳 특산물인 복어를 먹고 중독되어 목숨을 잃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복어 금식령을 내려 명치유신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먹을 수 없는 생선이었다.

그러다가 이웃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해금령을 내리면서 일본이 오늘날 복

전혀 걱정 말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

일제 시대 어느 채무자가 복어 알로 젓갈을 담가 채권자에게 먹고 죽으라고 갖다 준 뒤 만주로 달아 났다고 한다. 너무 맛있었던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 나섰으나 만나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

어느 날 우연하게 만났는데 채권자는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그 젓갈이 ‘어디서 구한 무슨 젓갈’이냐는 말만 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으나 알이 맛있다는 얘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12.25 ~ 2026.1.25>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 비

정운택(2026) 30,000	이충남(2026) 30,000
이성영(2026) 30,000	장성원(2026) 30,000
박문국(2026) 30,000	김기동(2026) 30,000
박순신(2026) 30,000	송충섭(2025) 30,000
윤석봉(2025) 30,000	박문두(2026) 30,000
김선기(2026) 30,000	

회 우 동 정

후배들이 깜짝 9순잔치 열어



조덕연 본회 자문위원이 깜짝 9순잔치를 했다. 서울신문 출신 사진부 강민석 박영균 김연수 김윤찬(본회 회우)등 후배들이 조선배의 9순 날짜를 챙겨 서울서 강릉까지 내려가 잔치를 베풀어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문화일보에 분실물 미담 소개



함정훈 본회 자문위원이 문화일보에 미담으로 크게 소개됐다. 함 회우는 서울대공원 산책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현금 50만원과 각종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했으나 익명의 시민과 은행카드사, 서울대공원 역무원의 분실물반환시스템 덕분에 찾았다는 내용이다

관훈저널 '취재 여담' 실려



정구중 회우(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47년전 <취재여담> '생명의 은인찾기 반세기'가 관훈클럽이 발행하는 관훈저널 2025년 겨울호(통권177호)에 크게 실렸다. 정회우가 47년전 동아일보 사회부 일선기자 때 뚝섬 나루터에서 있었던 '표류 세살 어린이 극적 구명'제하의 기사와 '기적의

재생 창국君'기사의 당사자가 49세의 중견기업인이 되어 생명의 은인 정회우를 찾아오기까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기사 투고 바랍니다

대한언론은 회우들의 신문입니다. 회우들의 동정, 시, 수필, 여행기, 사진 등 투고를 바랍니다.

■ 매달 15일 마감,
■보낼곳 ; Email:kjc1405@kjclub.or.kr
우편번호; 04520 서울중구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홍기 회우
(전 KBS 파리총국장) 1월7일 사망,
향년 83세

회우가 낸 새책

민정기 회우, '연희동 40년 민비서관' 비망록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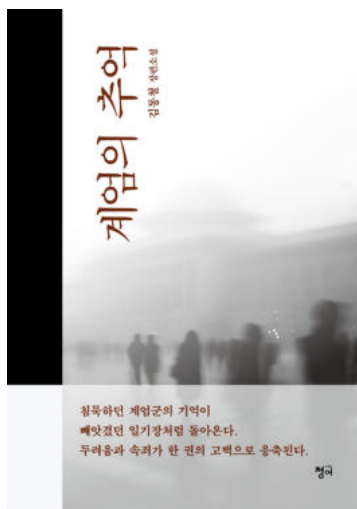
연희동
40년
민비서관

민정기(84) 회우가 최근 '연희동 40년 민비서관'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출간했다. 제목과 흑백 사진만 있을 뿐 저자 이름이 없다. 바코드 찍힌 판권이 있는 정식출판이 아니니 출판사는 물론 책값도 없다. 4X6배판 298쪽. 참고서 크기로 묵직하다. 자료집 형식의 제본 책이다. '그때 그 시절' 증언과 언론 인터뷰 모음집으로 격량의 현대사를 꿰뚫은 비망록이다.

민 회우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대한일보가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유탄을 맞고 폐간된 뒤 중앙일보,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일하다 1976년 최규하 국무총리 공보비서관으로 관계에 진출했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으며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그의 곁을 지켜 '의리의 민비서관'으로 불렸다.

민정기 비서관은 왜 전두환 일가의 상징인 '연희동'을 떠나지 못했는가? 그는 한마디로 '운명'이라고 말한다. 유치환 시인은 '너에게'라는 시에서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섭 본회 편집위원>

김동철 회우 '계엄의 추억' 증언 소설



장편소설 <계엄의 추억>은 저자가 1979 부마사태(민주화항쟁) 때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추억을 배경으로 한 현장 증언 소설이다.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시작된 소설은 꼬박 1년의 공을 들여 완성되었다. 10·18 부산 비상계엄선포, 10월 20일 마산-창원 위수령 발동에 이어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12·12 군부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화시대 개막 등 현대사의 굴곡진 변곡점이 주요 배경이다. 이 와중에 살아남아야 했던 민초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헤맨다. 군부세력을 대신한 민주화세력은 새로운 권력층이

되어 민생을 내팽개친 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몰두한다. 저자는 묻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도서출판 청어 간행 272페이지, 16,000원)

언론가 소식

언론중재위,

지난해 전체 시정권고 1천49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차별 금지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시정권고 건수는 1천49건으로,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931건(8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앙·지방 일간지를 합쳐 67건(6.3%), 뉴스통신이 48건(4.6%)이었다.

유형별로는 차별 금지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가 240건(22.9%)을 차지했다. 제목에 '눈먼 돈', '절름발이', '병어리 냉가슴' 등의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편집국장 송 창 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